

김영국 교수의 정치학: 삶, 그리고 연구와 강의를 중심으로 *

김 학 준(동아일보)

I. 머리말

대한민국 건국 이후 한국정치학계가 배출한 제1세대 정치학자군(政治學者群)의 대표적 정치학자라고 할 수 있는 고(故) 김영국 교수의 정치학세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야에 압축되어 있다. 서양의 정치사상과 정치철학이 그것이다. 서울대학교 문리대 정치학과에 입학한 1949년부터 서울대 사회대 정치학과 명예교수로 별세한 2000년까지 반세기 동안 김 교수는 이 분야 하나만을 천착했다. 서양의 정치사상과 정치철학 — 이렇게 짧게 표현되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얼마나 폭이 넓고 뜻이 깊은가? 기본적으로

*이 글은 은사 김영국 교수의 2주기를 맞아 제자들과 후학들이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한 학술발표회에서 선생님의 정치학세계를 돌이켜보려는 뜻으로 쓰여졌다. 선생님은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대한 독서와 사색이 깊으셨던 터에, 그 가운데서도 난해한 정치철학을 전공하셨던 만큼, 선생님이 이룩하신 정치학세계는 매우 넓었다. 그렇기에 필자처럼 생각이 짧고 공부가 약한 사람이 접근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도 감히 집필하게 된 까닭은 선생님께서 못한 제자에게 배푸셨던 학문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려는 뜻에 있다. 선생님의 정치학세계를 다시 살핌으로써 선생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데 대한 반성과 아울러 뒤늦게나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한 만큼, 훌륭한 제자들과 후학들에 앞서 가장 용렬한 필자가 집필하는 것을 너그럽게 받아주기 바란다. 또 세상 뜨신 은사를, 읽는 이들의 혼란을 덜어주기 위해 경칭을 생략하거나 대명사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용해주시기 바란다. 이 글이 장차 한국에서 정치학이 발달한 역사를 밝히려는 동학들에게 하나의 작은 자료가 된다면 보람이겠다.

로 서양의 철학, 특히 고대 그리스철학에 대한 공부와, 그리고 이 방면의 서양어 원전들을 읽을 어학능력이 기본적으로 요청된다. 따라서 이 분야를 자신의 전공으로 삼는다는 것은 비상한 각오와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분야를 전공하는 학도들은 어느 특정 시기, 어느 특정 사조, 어느 특정 사상가, 어느 특정 주제에 집중하게 된다. 김 교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저술들을 중심으로 살펴건대, 그는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Platon)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로부터 시작해 근대의 마키아벨리(Niccolo di Bernardo Machiavelli)와 루소(Jean Jacques Rousseau)를 거쳐 현대의 라스키(Harold Joseph Laski)와 매키버(Robert MacIver), 그리고 스트라우스(Leo Strauss)와 브레히트(Arnold Brecht)에 이르기까지 서양정치철학의 주류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마키아벨리, 루소, 라스키, 스트라우스 등에 매우 밝았다. 특히 마키아벨리와 라스키 및 스트라우스에 대해서는 국내 제1인자였고, 스트라우스에 대해서는 독보적 존재라고 평가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정치사상가들에 공통된 정치학적 주제는 무엇이었나? 그것은 “국가란 무엇인가?”와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서로 연결되는 문제의식, 그리고 그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 위에서의 “정치학이란 무엇인가?”의 문제의식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김 교수는 반세기의 삶을 이 질문과 씨름하며 보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이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 그의 지적(知的) 활동의 궤적을 살펴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II. 예비적 시기: 정치학과 학부시절

1. 정치학과를 선택한 까닭

우선 김영국 교수의 정치학자로서의 학문활동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정치학자로 입신하기 이전의 예비적 시기에 대해 간단히 살펴기로 한다. 그는 어려서부터 박람강기한 발군의 수재로 평판이 높았다. 1930년 6월 26일에 인천의 한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나 거기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서울의 6년제 경기중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점을 부분적으로 증명해 주거니와, 경기중학교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5학년 때인 1949년 6월 20일에 대학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데 이어 그때로서는 수재들 가운데서도 수재들만이 합격할 수 있다는 세평을 듣던 서울대학교 문리대 정치학과에 입학함으로써 '천재소년 김영국'의 전설을 낳으면서 장차 학자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서울대학교는 1946년 8월에 설립됐고, 정치학과는 이 때 동시에 창설됐으니, 그는 입학년도로만 따져 4회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그러면 그는 왜 정치학과를 선택했는가? 그 스스로 이 물음에 대답한 일은 없다. 그러나 그가 남긴 글 가운데 그의 심경이 엿보이는 대목이 있어 다음에 인용하기로 한다:

식민통치는 이 땅에서 반만년을 흐르던 정치의 강줄기를 묶어놓고 물 없는 불모의 하상(河床)만을 남겨 놓았다. 해방은 마치 36년간의 제방을 하루아침에 툭 터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도의 흐름 속에서 우리 겨레는 잃었던 목숨을 되찾았고 정치의 부활을 보았다. 전국의 대부분의 대학교가 거의 때를 같이하여 정치학과 또는 정치외교학과를 신설하게 되었음은 바로 이러한 민족의 정치적 생명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라 하겠다.

정치는 국가생활의 관건이며 정치가는 인간중의 인간이며 정치학은 제(諸)학문의 대종이라는 지배적 풍조 속에서 장차 이 나라 이 겨레의 초석이 되어 경륜을 펴보겠다는 구시대의 지사, 대통령을 바라보는 패기찬 실천가, 제학문 위에 군림하겠다는 야망을 가진 이론가들이 정치학의 수업과 정치역량의 배양차 정치학과에 모여들었다.¹⁾

김영국의 정치학도로서의 학부생활은 1949년 9월 1일에 시작되어 4년 7개월이 지난 1954년 3월 28일에 끝났다. 그 사이 몇 차례에 걸친 학제의 변경(예컨대, 새 학년도의 개시일을 1949년에는 9월 1일로, 1950년에는 6월 1일로, 1953년에는 4월 1일로 바꿨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전쟁으로 말미암은 서울대의 전시연합대학으로의 통합 및 분리 등에 따른 혼란이 겹쳤기 때문이었다. 그의 학부 성적표를 보면, 1949년도가 기

1) 김영국, 「학풍 한 세대(8): 정치학」,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1976년 5월 31일, 5쪽.

록되어 있고 1950년도와 1951년도는 아예 없는 채 1952년도와 1953년도가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게 된 첫째 이유는 그가 1950년 8월 10일에 육군 보병 2병(군번 0785472)으로 입대해 1951년 3월 31일까지 7개월에 걸쳐 복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제대와 동시에 부산에서 피난생활을 하며 생계를 위해 잠시 어떤 사업에 종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50년 11월에 개설돼 1952년 5월에 해체된 전시연합대학에는적을 두지 않았다.²⁾ 그가 복학한 때는 1952년 2학기였다. 이때의 김영국 학생의 모습을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2년 후배인 구범모(具範謨) 학생은 이렇게 회상했다: “내가 김 교수를 처음 만난 것은 1952년 6·25 동란중 부산 동대신동으로 피난갔던 문리대 판잣집 가(假)교사에서였다. 그로부터 근 40개 성상이 지났지만 그때 김 선배가 풍겨주었던 대쪽같이 곧은 성품과 옥과 같이 맑기만 한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는 그의 모습이다.”³⁾

그의 학부시절 정치학과 교수진이 어떻게 짜여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⁴⁾ 1학년 때이던 1949년 9월 1일부터 1950년 5월 31일까지에는 조선정치사와 조선정치사상사 분야의 이선근(李瑄根), 민주주의론 분야의 신도성(愼道晟), 조선사상사 분야의 김경수(金敬洙), 국제정치 분야의 이용희(李用熙), 헌법과 행정법 분야의 박일경(朴一慶), 경제원론과 재정학 분야의 임원택(林元澤) 등이 전임으로 재직했다.

2) 서울대에 비치된 김영국 교수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김영국 교수와 6년제 경기중학교 동기생이면서 서울대 정치학과 1년 후배가 되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이기원(李基遠) 전 교수는 이렇게 회상했다: “김영국은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해 대학은 나보다 1년 선배가 됐으나 경기중학교 때부터 친했기에 정치학과 때도 선후배를 떠나 아주 가깝게 지냈다. 6·25 동란이 일어나면서 그도 부산으로 내려갔지만 생계를 위해 어떤 사업에 종사하느라고 전시연합대학에 등록하지 않았다.” 2001년 12월 17일 전화통화.

3) 구범모 교수의 회고는 인산(仁山) 김영국박사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인산 김영국박사 화갑기념논문집: 정치학의 전통과 한국정치』(서울: 박영사, 1990), i-ii 쪽에 실린 구 교수의 「하서(賀序)」에 포함되어 있다.

4) 서울대학교 50년사 편찬위원회 편, 『서울대학교 50년사』(서울: 서울대학교, 1996), 하, 852-853쪽. 또 김영국, 위와 같음. 임원택에 대해서는, 두남(杜南) 임원택교수 정년기념논문집 편찬위원회 편, 『두남 임원택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사회과학의 제문제』(서울: 법문사, 1988), ix.

서임수(徐壬壽)는 입학 직전 또는 직후의 어느 시점에 전임강사직에서 사임했던 것 같다. 이선근은 1950년 2월에, 박일경은 1951년에, 신도성은 1952년에 사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외교사와 국제법 분야의 신기석(申基碩)은 1951년에 정치학과 전임직에서 떠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어느 시점에 부임했던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정치학과에 재직했음이 분명하다. 1951년에는 경제원론과 재정학 분야의 김두희(金斗熙)가, 1952년 10월에는 민병태(閔丙台)가 각각 부임했다. 다른 한편으로, 1949년 9월에 부임한 임원택 전임강사는 6·25전쟁 발발과 더불어 군에 입대했다가 1953년 4월에 사직했다.

2. 당시 정치학의 학풍과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진

그의 학부 성적표를 보면, 전체 취득학점 186학점 가운데 졸업논문학점 6학점을 제외한 180학점이 정치분야 80, 외교 및 국제법 분야 22, 경제 및 재정 분야 20, 사회학 분야 14, 헌법 및 행정법 분야 4, 프랑스어 및 독일어 분야 20 등으로 나뉘어 있다. 따라서 정치학 강좌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강했으며, 특히 외국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그에 관해 필자의 학부학생시절까지 내려온 '전설'에 따르면, 그는 영어와 프랑스어에 뛰어나 학부 때부터 정치학 원전들에 능숙했다고 한다. 그러나 성적표에 나타난 프랑스어 성적은 뜻밖에도 보통 수준이다. 그 까닭은 당시 성적평가가 매우 인색한 데 있었을 것이다.

그의 학부시절의 정치학 수학(修學)과 관련해 우선 토론돼야 할 대상은 이 시기 국내 정치학계의 학풍이다. 이 방면을 깊이 연구한 김계수(金桂洙) 교수에 따르면, 김영국은 우리나라 정치학의 '발족기(發足期)' 또는 '초창기'에 정치학을 공부한 셈이 되는데, 이 시기의 "한국 정치학은 [...] 일본의 학적(學的) 경향에 지배적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일본의 학적 경향'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다시 김계수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의 정치학은 정치학연구를 국가학과 법률학의 일익으로 간주하였으므로, 정치학에 있어서 법적·전통적 접근법의 경향이 이 시기의 한국 정치학의 지도적인 정치학자들의 학문적 활동으로서 반영되었다."⁵⁾ 이 점은 김영국의 성

적표에서 그대로 확인된다. 그가 수강한 정치학 과목들의 대부분이 (1) 국가학, (2) 정치를 법적·제도적으로 접근한 정치제도론(정부론, 정부형태론, 의회제도론, 민주정치제도론), 그리고 (3) 정치를 사상적 철학적으로 접근한 정치사상사 및 정치철학 등이기 때문이다. 그는 사상사에 관심이 컸기에, 조선사상사와 사회사상사도 각각 수강했다.

김 교수 스스로도 자신의 정치학과 학부학생시절을 이렇게 회고했다: “학문적으로 볼 때 당시의 학풍은 정치학의 계보로 본다면 이른바 전통적 연구에 속하는 것이었기에 전전(戰前)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일본으로 수입된 법학적 정치학의 잔재가 컸고 영국과 미국의 정치학 교과서가 원서로 또는 역서로 새로이 읽혔다. 그 가운데 이용희 교수가 신실한 국제사정 강의는 당시로 보아서는 분류가 어려운 새로운 강좌였다. [...] 사변 후 모든 것이 폐허로 돌아갔지만 정치학의 경우는 얻은 것이 많았다. 외국 특히 미국과의 접촉이 긴밀해짐에 따라서 문화적 교류도 활발해졌다. [...] 어려운 여건아래서도 어떻게 입수했는지 새로운 서적이 소개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새로운 서적이란 어떤 것이었나? 다시 김 교수의 회고를 들어보자. “새로운 주제는 아무래도 민주정치론이 되고, C. 베커(Carl Becker)의 Modern Democracy(1941)가 불법으로 복사되어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읽혔다.”⁶⁾

3. 민병태 교수와의 만남

그의 학부시절에서의 중요한 한 계기는 1952년 10월에 마련됐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거쳐 동국대학교 법정대학장으로 있던 공삼(公三) 민병태 교수가 주임교수로 부임해 온 것이다. 민 교수는,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부임함과 아울러 제1야당 민주국민당 입당을 통해 정계에 입문하고자 교수직을 사임한 신도성 교수의 후임이었다. 민 교수는 당시 만 39세에 지나지 않았지만 국내 정치학계의 제1인자로 꼽히면서⁷⁾ 어느 분야

5) 김계수, 『한국과 정치학』(서울: 일조각, 1987), 4쪽.

6) 김영국, 위와 같음.

7) 김계수, 『한국정치학: 현황과 경향』(서울: 일조각, 1969), 52쪽.

보다 국가학 분야에서, 특히 다원주의국가론 분야에서 탁월했다. 3학년 2학기 재학생이던 김영국은 민 교수의 국가학 강의로부터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워 각별히 따르게 됐으며 민 교수는 민 교수대로 자신의 경기중학교 후배이기도 하면서 학구열에 불타 있는 이 수발(秀拔)한 제자에게 가르침을 아끼지 않았다.

이 때를 앞뒤한 시기의 정치학과 강좌들과 관련해, 김 교수는 이렇게 회고했다: “새로 부임한 민병태 교수는 난잡한 다원주의국가이론을 전개하고, 이용희 교수는 현대미국정치학계의 태두로 알려진 메리엄(Charles Merriam)의 저서를 소개하는 한편 정부론 강좌를 신설했다. 그리고 신도성 교수가 민주정치원리 이외에 정치과정과 관련된 정당과 압력단체의 개념을 심어주었다. 예편된 이선근 교수가 외교사와 최근조선정치사들을 강의했다.” 그러면 교재들은 어떤 것들이었을까? 다시 김 교수의 회고를 인용한다:

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광복동 거리에는 고서상(古書商)이 아닌 서적상이 길가에 책을 벌려놓고 책을 팔고 있었다. 대부분이 옛날 책이었으나 그 가운데는 일본, 미국 등 지역에서 발간된 신간서가 많았다. 교수와 학생들은 메마른 호주머니의 바닥을 털면서 경쟁하다시피 진귀본을 사고 입수할 길도 없는 신간을 책방주인에게 구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당시의 서적은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것이 아니었다. 일본서적은 대부분이 밀수 아니면 개인의 소장서였고 양서는 미군 도서관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우리에게 새로운 책이었으나 출판년도로 따진다면 오래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서들이 외국에 있어서 정치학 연구현황의 편모를 알려주기에는 충분했다. 전전(戰前)에 일본을 통해서 수입된 독일계 학문체계 이외에도 새로운 학문체계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것만 해도 그 공로가 크다. 다행한 것은 우리가 우연히 접한 미국의 정치학은 2차대전후 획기적 발전을 했고 모든 면에서 세계의 정치학계를 주름잡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 앞선 이론을 부족한 독해력과 미숙한 훈련의 애로를 겪으면서도 이해 섭취 소개하려고 애썼던 것이다.⁸⁾

8) 김영국, 위와 같음.

다시 그의 회고에 따르면, 대체로 1952년과 1953년을 고비로 전선이 안정되면서 대학도 비교적 안정을 되찾아갔고 그러한 분위기 아래 유럽과 미국의 정치학 책들이 번역되어 나왔다. 그 책들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III. 다원주의국가론에 몰입하다

1. 정치학과 석사과정시절

김영국은 1954년 3월에 서울대학교 제 11회 졸업생으로 정치학학사를 받으면서 1954년 4월 1일자로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3년 뒤인 1957년 3월에 정치학석사를 받는데, 이 3년 동안의 수학 내용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우선 이 기간의 학풍을 돌이켜 보면, 구범모(具範謨) 교수의 표현으로는, '국가론의 추상론적 논의'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행태주의적 정치학이 도입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국가론'과 관련해서는, (1) 블룬츨리(Johann Kaspar Bluntschli)와 그나이스트(R. Gneist) 및 옐리네크(Georg von Jellinek) 등으로 대표되는 독일 국가학의 정향, (2) 바커(Ernest Barker)와 라스키 및 콜(G.D.H. Cole)과 매키버 등으로 대표되는 영국의 다원주의국가론의 정향, 그리고 (3) 마르크스(Karl Marx)의 유물사관적 국가론의 정향 등이 지배적이었다.⁹⁾ 이 가운데 시대적 정치적 제약을 가장 많이 받은 정향은 물론 마르크스 국가론이었다. 공산주의자들과 무려 37개월에 걸쳤던 전쟁을 막 멈춘 직후의 엄혹한 반공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이적(利敵) 표현물'의 소지와 독서를 금지시킨 국가보안법 아래서, 마르크스의 저작들을 연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그런가 하면, 독일 국가학의 경우에는 비교적 젊은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학문으로 인식됐다. 이 점과 관련해 윤천주(尹天柱) 교수는 1950년대 중반에 이렇게 회고했다: "해방 후 변경된 우리의 상황에

9) 구범모, 「비교정치학 20년의 반성」, 『한국정치학회보』 제2집 (1967), 11 쪽.

서, 1920년대까지 세계적 영향을 가졌고 이제는 독일인 자신도 수정을 가하고 있는 일반국가학적 사고방식에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의존하였다는 것은 우리 학계가 얼마나 후진적이었던가를 말한다.”¹⁰⁾ 이러한 배경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가 실험되던 1950년대의 정치상황과도 맞물려, 자연스럽게 다원주의 국가론이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 따라서 김계수 교수의 조사로는 이 시기에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읽히던 정치학 책은 라스키의 저서들과 매키버의 저서들이었다. 그리고 그 무렵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하던 미국의 행태주의적 정치학과 관련해, 정치학의 과학적 연구를 주창해 오면서 이른바 정치과학운동을 이끌어온 시카고학파의 태두 메리엄의 저서들이 널리 읽혔다.¹¹⁾ 이 과학적 연구와 관련해, 김영국 스스로 이렇게 회고했다:

[1950년대 중반과 후반 사이] 상당수의 정치학자가 도미중이거나 도미 연구를 마치고 귀국하여 신풍을 일으켰다. 당시 미국에서는 법학 및 제도 연구를 주축으로 하는 이른바 전통적 학풍을 청산하고 사회학 및 심리학을 기초로 경험적 및 분석적 방법을 개발하고 있었다. 정치학의 연구도 경험을 토대로 과학화하자는 것이 이들 학자들의 일반적 주장이었다. 가령 국가가 무엇이나의 문제는 관념으로 규명될 수는 없으며 개별국가를 구체적으로 연구한 뒤에나 비로소 그 실태를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른 한편 정치의 법률이나 제도와 같이 정태적인 것이 아니기에 이를 동태적인 것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또한 역설되었다.¹²⁾

그 무렵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진은 이러한 흐름에 대체로 가까운 편이었다. 정교수에 민병태, 부교수에 이용희와 김두희, 대우교수에 김성희(金成熿), 전임강사에 박준규(朴浚圭) 등 5명이 전임이었으며, 김운태(金雲泰), 서임수, 황산덕(黃山德), 정인홍(鄭仁興), 이세구(李世求), 서석순(徐碩

10) 윤천주, 『한국정치체제서설: 정치상황과 정치형태』, 증보판(서울: 문운당, 1962), 92쪽.

11) 김계수, 『한국과 정치학』, 8쪽.

12) 김영국, 위와 같음.

淳), 한태연(韓泰淵), 이정우(李晶雨), 천관우(千寬宇) 등 9명이 시간강사로 출강했다.¹³⁾ 그들 가운데 민 교수가 바로 다윈주의 국가론의 대가로 국내 정치학계의 주류를 이끌고 있었고, 미국의 브라운대학교에서 정치학석사를 받은 데 이어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마친 박준규, 그리고 국내에 메리엄을 소개하는 데 선구적 역할을 수행한 김운태가¹⁴⁾ 메리엄을 중심으로 한 시카고학파의 '체계적 정치학'을 강의하고 있었다. 미국의 네브라스카 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를 받고 라스키의 정치이론에 밝았던 서석순, 역시 미국에서 서양정치제도를 전공한 이정우가 미국과 영국의 정치학을 소개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용희 교수는 국제정치학을, 김두희 교수는 경제원론과 재정학을, 그리고 김성희 교수는 유럽정치사와 서양정당정치론을 각각 강의하고 있었다. 여기서 잠시 토론될 점은 김성희 교수 역시 메리엄의 한 저서 *The Role of Politics in Social Change* (1936)를 1955년에 민중서관에서 『사회변동과 정치』로 역간했다는 사실이다. 유럽정치사와 서양정당정치론을 전통적 방법에 서서 가르치던 김성희 교수도 메리엄의 저서를 번역했다는 사실은 메리엄의 '체계적 정치학' 또는 '정치과학운동'의 영향이 대부분의 정치학과 교수들에게도 밀려왔음을 뜻했다.

2. 민병태 교수의 국가다원론에 영향받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라스키로 대표되는 다윈주의 국가론, 그리고 거기에 뿌리를 둔 민 교수의 정치학세계를 짧게나마 살펴볼 필요를 느끼게 된다. 단순화시켜 말하건대, 국가에 관한 이론과 사상 및 철학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로부터 시작되어 고대 로마의 철학자들과 중세의 신학자들을 거치고 마침내 근대의 정치사상가들에 이르러 국가학으로서 하나의 체계를 갖췄을 때, 그것은 대체로 절대국가론의

13) 서울대학교 문리대 정치학과, 『정치학보』 창간호(1955년 12월)의 끝 부분. 강사진에 포함된 천관우는 물론 언론인 천관우로 '신문원론'을 강의했다. 김영국은 3학년때 두 학기에 걸쳐 이 과목을 수강했다.

14) 그는 1955년에 제일문화사를 통해 메리엄의 *Prologue to Politics*를 『정치학서설』로 역간한 데 이어, 1956년에는 일조각을 통해 메리엄의 *Systematic Politics*를 이우현(李宇鉉)과 함께 『체계적 정치학』으로 역간했다.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면 이 절대국가론의 이론적 핵심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주권론이었다. 국가가 사회전반에 걸쳐 무제한적 최고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절대주권론으로 근대국가는 무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절대주권론에 이의를 제기한 최초의 사상가들 가운데 대표적 학자가 바로 독일에서 단체법이론을 창시한 법학자들 가운데 지도적 학자인 기에르케(Otto von Gierke)였으며, 기에르케의 이론을 기점으로 국가가 사회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는 분리되어 있으며 국가는 사회 안의 많은 단체들 또는 결사체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이론이 성장해 마침내 국가의 사회전반에 걸친 독점적 주권을 부인하는 다원주의국가론 또는 국가다원론이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내용의 다원주의 국가론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여러 갈래로 나뉘어 갔으나 대체로 영국의 정치학자 라스키, 역시 영국 태생으로 뒷날 캐나다와 미국에서 교수로 활동하는 매키버, 역시 영국 태생으로 집산주의론(集産主義論: 생디칼리즘)을 세운 콜, 네덜란드 출신으로 법주권론을 제창한 유고 크라베(Hugo Krabbe), 그리고 프랑스의 레옹 뒤기(Leon Duguit) 등에 의해 정교하게 정립됐다. 그 가운데서도 런던경제정치대학교 정치학 교수로 노동당 중앙집행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라스키에 의해 더욱 정치해졌다.¹⁵⁾

굳이 새삼스럽게 설명하지 않아도 금세 깨닫게 되듯, 다원주의 국가론은 현대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에 직결된 이론이었다. 국가가 구성원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노동조합을 비롯한 여러 수많은 단체들이나 결사체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다원주의자들의 이론은 절대주권을 앞세우는 국가에 대한 중대한 가격(加擊)이었으며, 그것은 국가구성원의 자유와 기본권 확보에 대한 중요한 후원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독재적 단일 계급정당의 수뇌부 또는 지도자가, 사회를 그 내부에 포함시킨 국가 전체를 영도해야 한다는 전체주의 국가론에 대한 중대한 반론이었다.

민 교수는 바로 이러한 취지의 국가다원론을 국내에 소개한 최초의 정치학자였다.¹⁶⁾ 일찍이 일본 게이오(慶應)대학 정치학과에서 9년에 걸쳐 예과

15) 라스키의 정치이론에 대한 나의 설명은 다음에 있다. 김학준 편저, 『라스키와 「현대 국가에 있어서의 자유」』(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16) 배성동(裴成東), 「민병태 교수의 “Pluralism 특강”」, 『한국정치연구: 공삼 민병태 교

와 본과 및 대학원을 두루 마친 뒤 다시 3년에 걸쳐 조교수급 연구원으로 남아 주로 유럽의, 특히 영국의 정치학을 깊이 공부하고 귀국한 그는 1954년부터 1957년까지 3년에 걸쳐 라스키의 *A Grammar of Politics*(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25)와 *The State in Theory and Practice*(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35)를, 그리고 매키버의 *The Modern State*(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51)를 역간했다. 또 제닝스(Sir Ivor Jennings)의 *The British Constitution*, 3rd. ed.(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0)를 역간했다.¹⁷⁾

민 교수의 라스키 및 매키버의 소개가 당시 국내 정치학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던가는 김계수 교수가 1965년에 국내 정치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입증됐다. 1945년부터 1955년까지의 10년에 걸쳐 국내 정치학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외국학자로 1위에 라스키가, 2위에 매키버가 각각 올랐음이 그것을 말해준다. 공동 3위에는 라스웰(Harold D. Lasswell)과 메리엄이 올랐다.¹⁸⁾

대학원생 김영국이 석사과정에서 어느 과목을 수강했는지는 그의 성적표에 자세히 나와있다. 1954년도 1학기에는 19세기 이후의 정치사상, 국제법 연구, 재정정책, 국가론을, 2학기에는 국제법, 근세정치사상, 외교사를 수강했다. 이어 1955년도 1학기에는 최근정치이론, 절대주의론, 국제법을, 2학기에는 최근정치이론, 절대주의론, 국제정치학을 수강했다. 마지막으로, 1956년도 1학기에는 정치학방법론, 절대주의연구, 정치사상, 정치이론을, 2학기에는 절대주의연구, 정치사상, 정치이론, 행정학을 수강했다. 모두 74학점을 취득했는데, 대체로 정치이론 및 정치사상 분야에 치중하고 이어 국제정치 분야에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는 석사과정 2

수 20주기 추모특집』(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제7집 (1997), 1-23쪽.

17) 라스키의 앞의 책은 『정치학 강요(綱要)』 상(1954)과 하(1957)로 각각 문연사 및 민중서관에서, 라스키의 뒤의 책은 『국가론: 이론과 실제』(1954)로 백영사에서, 매키버의 책은 『근대국가론』(1957)으로 민중서관에서, 그리고 제닝스의 책은 『영국헌정론』(1955)으로 민중서관에서 각각 출판됐다. 『정치학 강요』에는 오역이 때때로 있어서, 1969년에 개역돼 민중서관에서 역시 상과 하로 중간됐다.

18) 김계수, 『한국과 정치학』, 68쪽.

차년도인 1955년 5월 20일에 서울대학교 총장으로부터 무급조교 발령을 받음으로써 이미 전임이 될 수 있는 길에 들어섰다. 그는 대학원 석사과정 생으로서 보다는 조교로, 정치학과 연구실에서 생활하다시피 하며 민 교수의 소장 도서들을 탐독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그가 다윈주의 국가론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고 믿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중요하게 지적돼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민 교수의 이름 아래 역간된 책들의 전부를 사실 이 시기에 민 교수의 지도 아래 김영국이 번역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에 대해 그 뒤 20년 남짓한 세월 동안 김영국 스스로 말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1977년 봄에 민 교수가 필자를 후암동 자택으로 불러 찾아뵈었더니 민 교수가 번역한 것으로 되어 있던 매키버의 『현대국가론』을 주시면서, “사실 이 책은 영국이가 대학원생 때 내 이름으로 번역한 것인데, 이제 출판사 민중서관이 새 쇄(刷)를 하겠다고 하니 이번엔 영국이 이름을 넣어서 공역으로 하도록 하게. 그리고 첫 쇄의 역자서문에 ‘교정을 맡아 준 김영국 군’ 운운의 문장을 빼도록 하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이 때야 비로소 이 책이 김영국이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으로 번역한 것임을 알았다. 민 교수의 말씀을 김 교수에게 전했다니, 김 교수는 그제서야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따르도록 하라”고 해 그해 6월에 나온 새 쇄에는 민병태·김영국 공역으로 되어 있다.* 민병태 역의 『국가론』에 대해서도, 민 교수가 별세한 뒤인 1983년에 김 교수는 자신의 이름 아래 『국가란 무엇인가』로 개제해 출판사 두레에서 역간하게 된다. 이 점과 관련해, 김 교수는 역자서문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본래 이 책은 은사이신 고 민병태 교수님께서 1955년에 백영사(白映社)판의 『국가론』으로 내놓으신 바 있다. 그러나 민 교수님의 역본은 절

*민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필자는 “이 책에는 고어 투의 표기가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페르샤를 파사(巴斯)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쇄(重刷)하는 제체에 문장을 오늘날의 어법에 맞게 제가 조금 다듬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 올렸다. 민 선생님은 한마디로 안 된다고 하셨다. “영국이가 한 것이라 빈틈이 없을까야.” 이 한마디에 필자는 책만 받아두고 돌아왔다. 김 교수에 민 선생님의 믿음은 것처럼 굳었다.

판되어 지금은 구해보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러던 중에 출판사측의 요청이 있었고 또한 민 선생께서 이 저서에 부여했던 의미를 후학으로서 되살리고자 하는 역자 나뉘의 의욕도 생겨서 손을 대게 되었다.

이처럼 대학원 석사과정시절에 이미 라스키와 매키버의 주저(主著)들을 약간할 정도의 실력이었으니, 그는 이미 다윈주의 국가론을 통달하고 있었다고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3. 국가에 관한 초기의 저술들

대학원 석사과정생 김영국의 다윈주의 국가론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한 부분은 그가 1955년 12월에 서울대학교 문리대 정치학과가 창간한『정치학보』에 발표한 「정치학의 대상으로서의 정치현상」이란 논문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집은 등사판으로,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볼품이 떨어지나 그 때로서는 의욕적인 작품이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대학원생인 그의 논문이 민병태 교수의 논문과 이용희 교수의 논문에 이어 47-57쪽에 게재됐다는 사실이다. (김영국의 논문 다음으로 대학원생 구범모의 「페이비안사회주의에 관한 소고」가 게재됐다.) 그의 처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논문은 그 때의 학풍과 관련해, 그리고 그의 앞으로의 연구경향과 관련해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논문의 요지는 “종전에는 정치와 국가가 동일시되어 있던 시기도 있었으나 필자는 이의 부정으로써 그 출발점을 삼을까 한다”는 앞부분 문장에 압축되어 있다. 이 문장은 바로 다윈주의 국가론의 출발점이란 점에서, 그가 당시 민 교수에 의해 소개되어 한국정치학계의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 잡은 다윈론에 충실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그는 사회와 국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라스키의 이론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했다.

이 논문의 발표에 이어, 그는 프랑스의 정치사상가 루소(Jean Jacques Rousseau)가 1754년에 쓴 「인간불평등의 기원 및 근거에 관한 논문」을 번역해 1956년 2월에 현대문화사에서 『인간불평등기원론』으로 출판했다. 대본으로는 본(C.E. Vaughan)이 편집해 1915년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

판부에서 간행한 *The Political Writings of Jean Jacques Rousseau* 2권 가운데 제1권을 사용했다. 널리 알려져 있듯, 이 논문에서 루소는 자연상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루소가 말하는 자연상태는 홉스(Thomas Hobbes)가 말하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도 아니며, 로크(John Locke)가 말하는 '평화 선의 상호부조 및 상호보존의 상태'도 아니다. 그것은 완전한 고립상태, 곧 인간은 모두가 독립해서 하늘이 준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상태이다. 이 논문에 이어 루소는 1762년에 『사회계약론』을 출판했는데, 여기서 그는 자연상태가 구성원들의 '일반의사'에 바탕을 둔 사회계약에 의해 지양되어 공화제국가를 성립시키게 된다는 논지를 전개했다. 이러한 루소의 공화제 국가론은 왕정을 핵심으로 삼은 앙상 레짐, 곧 구체제에 반대하던 사상가들과 혁명가들에 큰 영향을 끼쳤기에 결국 1789년에 일어나는 프랑스대혁명의 사상적 원천으로 여겨지게 된다.

루소의 정치사상사적·정치이론적 위치를 이렇게 평가할 때, 김영국이 루소의 주요 저술들 가운데 하나인 『인간불평등기원론』을 역간했다는 것은 그가 국가의 기원에, 좀 더 포괄적으로는, 국가론에 관심을 쏟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그는 몇 해에 걸쳐 일관되게 국가론에 몰입해 있었다.

김영국의 석사과정 3년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그가 석사학위논문으로 민 교수의 지도 아래 「국가이론의 변천과 현대민주주의」를 썼다는 사실은 당연하다. 그러면 이 논문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이 논문은 등사판으로 되어 있으며 3쪽에 걸친 영문초록을 빼놓으면 모두 122쪽으로 구성됐다. 200자 원고지로 환산한다면 약 180매 분량이다. 1956년 12월에 등사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다. 구성을 보면, 제1장이 「서론」이고, 제2장이 「역사적 변천」이며, 제3장이 「현대민주주의와 국가권력」이고, 제4장이 「결론」이다.

이 논문이 대체로 어느 이론가에 의존했던가는 각주에 잘 나타나 있다. 각주를 보건대,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론가는 엘리네크, 라스키, 매키버, 콜, 메리엄, 바커, 뒤기, 세바인(George Sabine) 등이며, 보다 더 고전적 사상가로는, 홉스와 로크 및 루소, 그리고 벤덤(Jeremy Bentham) 등이다. 그들 가운데서도 가장 자주 인용된 이론가들은 압도적으로 다원주의국가론 계열의 정치학자들, 특히 라스키와 매키버 등이다.

이렇게 볼 때, 이 논문의 핵심적 내용이 무엇이었던가는 스스로 명백해

진다. 이 논문은 국가에 관한 이론이 고대 그리스 이후 어떻게 전개되어 왔던가를 살핀 뒤 결론적으로 다원주의 국가론을 자세히 설명함과 아울러 그것을 옹호하고 있다. 특히 라스키의 이론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면서, 92~93쪽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라스키는 단체이론에 입각하여 국가의 주권뿐만 아니라 국가의 통일성을 전제하는 ‘일반의사’의 존재도 시인하지 않으며 국가도 무수한 사회집단들 가운데 하나로 보는 다원주의 국가론을 전개해 국가이론사상 커다란 전환을 초래한다.” 그는 “이러한 다원론적 국가이론은 길드 사회주의(Guild Socialism)를 표방한 콜, 프랑스의 뒤기, 화란의 크라베, 미국의 매키버에 의해 주장된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다원주의국가론이 현대민주주의의 이론적 뼈대라고 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김영국이 다원주의 국가론에 의해 현대민주주의 이론이 완결됐다고 본 것은 아니다. 그는 “민주주의는 영원히 완성될 수 없는 통치형태를 의미하며, ‘이것이 민주주의국가이다’라고 말할 수 있자면 민주주의는 앞으로 몇 세기를 더 성장해야 할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매키버의 지적을 소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듯이, 김영국은 민주주의를, 곧 다원적 민주주의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이념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는 민주주의에도 문제들이 있음을 인정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인간에 대한 신조(信條)’에 있는 만큼 ‘인간에 대한 신조’를 구현하지 못하는 일들은 고쳐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쳐져야 할 것인가? 그는 120~121쪽에서 일단 ‘합법적 방법’과 ‘비합법적 방법’을 상정한 다음, 그러나 “사회개혁의 방법까지도 민주주의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결론지었다. 김영국의 일생을 일관하는 점진주의적이면서도 합법적인 개혁론, 그리고 그것에서 파생하는 보수주의적 경향은 이미 그의 석사논문에서 보인다고 하겠다.

이 석사논문이 통과됨으로써 김영국은 1957년 3월의 서울대학교 졸업식에서 정치학석사를 받았다. 자료의 미비로, 서울대학교가 수여한 정치학석사로 몇 번째에 해당되는가는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 그러나 몇몇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¹⁹⁾ 대체로 스무번째 정도인 것 같다. 뒷날 서울대 총장이 되는 박봉식(朴奉植), 뒷날 서원대 총장이 되는 이정식(李廷植) 등과 함께

였다. 석사학위를 받음과 아울러 그는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유급조교로 임명됐으며 동시에 시간강사로 위촉됐다. 주로 원서강독을 담당하던 가운데, 자신의 석사논문을 개고해 1957년 12월에 출간된 『정치학보』 제2집에 같은 제목 아래 발표했다.

VI. 미국유학에서 스트라우스로부터 배우다

1. 왜 시카고대학교를 선택했을까?

20대 후반의 젊은 정치학자 김영국의 앞날은 매우 밝아 보였다. 그는 28세가 된 1958년 4월에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전임강사로 발령 받은 것이다. 이어 한 달 뒤에는 곧바로 인촌(仁村) 김성수(金性洙) 전 부통령의 아들로 삼양사 창업자인 수당(秀堂) 김연수(金季洙)의 따님과 결혼해 일가를 이뤘다. 수당의 절친한 친구로 그때 문리대학장이던 일석(一石) 이희승(李熙昇) 교수가 문리대 문학부장이던 민 교수에게 “유망한 젊은 교수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이어 미국 국무성 장학생으로 선발돼 1학기가 끝나면서 1958년 8월 2일부터 미국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로 유학하게 됐다. 그 사이 영국의 정치학자 웰던(T.D. Weldon)의 *The Vocabulary of Politics* (Baltimore: Penguin Books, 1955)를 『정치학사전』으로 번역해 현대문화사에서 출판하기도 했다. 그만큼 20대 후반에서의 그의 학문적 정열과 우수한 실력은 빛났다. “김영국이 앞으로 한국의 정치학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기대는 이러한 근거에서 자라난 것이었다. 다만 이 역서를 지금으로서는 찾을 수가 없어 안타깝다.

19) 필자에게 전달된 서울대학교의 정치학석사학위 수여자 명단은 1953년에 받은 박문옥(朴文玉)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구범모의 앞의 논문의 부록과 『국제정치논총』 제1집(1963년 8월) 말미의 부록에 게재된 정치학석사 수여자 명단, 그리고 동아일보사 조사연구부의 서울대학교도서관 자료검색을 통해 확보한 명단 등을 종합해보면, 정치학석사학위 수여의 첫 해인 1949년에 원충연(元忠淵)과 김영진(金英振) 및 최성악(崔性岳) 등이, 1950년에金玉坪(金玉坪) 등이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유럽의, 특히 영국의 정치이론을 깊이 공부해온 김 교수가 왜 영국으로 유학하지 않고 미국으로 유학했는가를 생각해보는 것은 그때 세계적 수준에서, 그리고 국내적 수준에서 정치학의 학풍이 어떠했는가와 연관해 의미 있는 일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 정치학이 비록 유럽에서 발생하고 성장했다고 하지만 이 무렵에는 정치학연구의 큰 물줄기는 이미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와 있는 형편이었다. 그 변화는 1921년에 시카고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메리엄에 의해 시작된 '정치과학' 운동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겠으나, 2차대전이 끝난 이후의 시기에 더욱 활발해진 '정치과학' 운동에서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겠다. 정치현상을 철학적 방법, 법적·제도적 방법, 역사적 방법이라는 전통적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현장조사와 계량분석에 바탕을 둔 '과학적' 방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정치과학'을 정립하자는 이 운동은 메리엄의 제자들인 라스웰과 키(V.O. Key) 및 알몬드(Gabriel A. Almond), 그리고 트루먼(David B. Truman) 등의 후속적 연구들에 의해 행태주의 정치학으로 확실하게 자리잡은 채 세계의 정치학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50년대에는 서방세계의 정치연구에서 '행태적 혁명(behavioral revolution)'이 주류를 형성했다. 이러한 변화는 예컨대 영국의 정치학계에 대해서도 자극을 주어, 다원주의 국가론을 비롯한 전통적 접근방식의 정치연구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웰던과 같은 정치학자가 그 대표적인 경우로, 그는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과학, 그리고 가치와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는 정치이론을 명백히 구별해야 한다고 제의한 것이다.

이러한 '정치과학' 운동에 대해 전통적 방법을 옹호하는 정치학자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었다. 민 교수도 반발하는 정치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김 교수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미 국제사회에서 정치학의 중심무대는 미국으로 이동했음을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점은 앞에서 몇 차례 인용했던 김계수 교수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1956년과 1965년 사이에 한국의 정치학계에 영향을 미친 외국의 정치학자를 지목함에 있어서 한국의 정치학자들은 1위에 시카고대학교의 모겐소(Hans J. Morgenthau), 2위에 라스웰, 3위에 알몬드, 4위에 이스턴(David Easton), 5위에 메리엄을 꼽은 것이다. 1945~1955년의 시기에 1위였던 라스키나 2위

였던 매키버는 8위안에 들지 못했음을 대비할 때,²⁰⁾ 국내의 정치학계가 얼마나 빠르게 영국의 학풍에서 미국의 학풍으로 바뀌었는가를 쉽게 깨닫게 된다. 이와 관련해, 김계수 교수는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이 시기[1956~1965]에 있어서 뚜렷한 사실은 라스키 시대의 종말인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의] 정치학계를 거의 석권하다시피 한 것은 라스키의 정치학이다. 라스키의 정치학 또는 이론이 완전히 후퇴한 주원인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미국정치학의 영향을 들 수 있을 것이다.”²¹⁾ 이러한 변화는 국내 정치학자의 공헌도(貢獻度) 순위에서의 변화로 곧바로 이어졌다. 다시 김계수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1945~1955년의 시기에 1위로 지목됐던 민병태는 1956~1965년의 시기에서는 2위로 내려간 대신에 미국적 행태주의 정치학의 도입에 선구적 역할을 수행한 윤천주가 1위로 올라선 것이다.²²⁾

이러한 학풍의 전환점에서 김영국 교수는 자신의 유학지로 미국을 선택하게 됐다. 그것도 정치학의 중심지인 시카고대학교였다. 시카고대학교는 모든 분야에서 명문이었지만 특히 정치학 분야에서 이른바 시카고학파를 형성해 미국의 정치학계에, 그리고 세계의 정치학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곳이었다. 따라서 한국정치학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발군의 신진기예가 시카고대학교를 자신의 유학지로 선택했다는 것은 당연했다.

2. 시카고대학교에서 수강한 과목들

김영국의 시카고대학교 유학생할은 이듬해 6월 30일까지 약 11개월로 끝났다. 그의 유학생할에 관한 자료는 드물다. 강의를 필기한 노트가 한 권 남아 있을 뿐인데, 자신의 성명을 Kim, Young Kook으로 표기했고, 주소는 Box 33, 6107 S. Dorchester Avenue., Chicago 37, 전화번호는 PL-29463으로 되어 있다. 첫 학기에는 커윈(Jerome Gregory Kerwin) 교수의 고대그리스정치사상, 오스굿(Charles Osgood) 교수의 국제정치학, 파이너(Herman Finer) 교수의 비교정부론 등 세 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되어 있다.

20) 김계수, 『한국정치학』, 68쪽.

21) 위와 같음, 73쪽.

22) 위와 같음, 52쪽.

커윈 교수는 카톨릭 신도로서 특히 중세 기독교철학에 매우 밝았다. 그의 고대그리스정치사상 강좌에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주로 배웠다. 교재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요 저작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과 『정치학』 등, 그리고 세바인의 *A History of Political Theory*(New York: Holt, 1950)와 매클웨인(Charles H. McIlwain)의 *The Growth of Political Thought in the West: From the Greeks to the End of the Middle Age*(New York: Macmillan, 1932) 등이었다. “매클웨인의 책은 쉽지 않으며 철저히 읽어야 한다”는 교수의 소개의 말이 필기되어 있다. 페리클레스(Pericles)의 시대에서 시작해 소크라테스(Socrates)와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시기를 거친 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기까지 다뤘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Sabine을 어떻게 발음해야 할 것인가의 ‘시시콜콜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기로 한다. 1963년에 Sabine의 *A History of Political Theory*가 민병태 교수의 이름으로 역간됐을 때는 ‘세바인’으로 표기됐고, 그 발음이 오랫동안 통용됐다. 이 관행에 대한 이의가 10여년 뒤 제기됐다. 1970년대 후반에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로 부임한 길승흠(吉昇欽) 박사가 “내가 공부한 미시건 대학교에서는 ‘세이빈’으로 발음했다”고 말해 그 뒤 다른 사람이 그 책을 번역할 때는 ‘세이빈’으로 표기됐다. 그런데 김영국의 강의노트를 보면 Sabine의 책이 필독서들 가운데 하나로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강의노트에 Sabine이 자주 나온다. 이 때 그는 담당교수로부터 ‘세바인’으로 배웠을 것이며 그래서 민 교수의 역서에 ‘세바인’으로 표기하도록 했을 것이다.

커윈 교수의 정치사상사 강좌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살펴기로 하고, 오스굿 교수의 국제정치학 강좌에 대해 살펴본다. 이 강좌는 군사력 또는 전쟁론으로 시작됐다. 당연히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의 전쟁론이 강의됐다. 이어 권력, 권력과 강제의 관계, 군사력의 심리적 효과, 민군관계 등이 강의됐다. 케난(George Kennan), 헌팅턴(Samuel Huntington), 니버(Reinhold Niebur), 모겐소 등의 이론 등도 강의됐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소련의 군사전략이 비교된 데 이어 핵전쟁이 논의됐다.

파이너 교수는 영국 런던경제정치대학교 교수로 시카고대학교에 객원교수로 왔다가 정식 교수가 됐다. 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의회 등에

대해 명저를 남겼지만, 역시 2권으로 된 *The Theory and Practice of Modern Government*(1932; 재판 1949)가 대표작이면서 비교정부론의 고전이다. 로크, 버크(Edmund Burke), 보당(Jean Bodin), 밀(J.S. Mill), 그로티우스(Hugo Grotius), 마르크스, 브린턴(Crane Brinton) 등이 강의됐고, 무정부주의자인 크로포트킨(Pyotr Kropotkin)도 강의됐다. 다른 한편으로, 매디슨(James Madison)을 비롯한 미국 연방주의자들의 이론, 그리고 조합주의국가론(corporate theory of state) 등도 소개됐다.

두 번째 학기에 관해서는 자료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생시 김 교수의 회상에 따르면, 그는 우선 정치권력론 강좌를 수강해 라스웰의 권력론과 엘리트론에 대해 깊이 읽었다. 시카고대학교에서 정치학학사와 정치학박사를 받은 뒤 유럽의 몇몇 대학들에서 연구를 계속한 데 이어 시카고대학교에서 부교수로 봉직한 뒤 미연방정부에서 주로 연구직에 종사한 라스웰은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정신분석학과 심층심리학을 기초로 인간의 정치행동을, 특히 정치인의 행동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치심리학 분야를 개척했다. 그는 2차대전이 끝나기 이전에, *Psychopathology and Politics*(1930)와 *Politics: Who Gets What, When, How*(1936)를 출판했고, 2차대전이 끝난 뒤에는 *The Analysis of Political Behavior*(1948)와 *Power and Personality*(1948) 등을 출판했을 뿐만 아니라 캐플란(A. Kaplan)과 함께 *Power and Society: A Framework of Political Inquiry*(1950)를 출판함으로써 미국정치학계의 지도적 학자로 자리잡았다. 김 교수는 또 뢰벤스타인(Karl Loewenstein)이 1957년에 시카고대학교 출판부에서 펴낸 *Political Power and the Government Process*를 접했다. 뢰벤스타인은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받은 뒤 나치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귀화해 주로 앰허스트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았던 공법학자 및 정치학자로 많은 저서를 남겼으나 특히 이 저서로 명성을 확고히 했다. 이 시기에 정치체계론으로 미국정치학계에서 주목받던 이스튼이 시카고대학교에 교수로 봉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영국은 이스튼 교수로부터는, 또 그의 과학적 연구방법으로부터는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다.

3. 레오 스트라우스 교수에게 배우다

그러나 이 학기의 수강과 관련해 그것들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그가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을 수강했다는 사실이다. 이 때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을 수강하면서 그를 민병태 교수에 이은 자신의 두 번째 스승으로 모시게 됐다.

그러면 스트라우스는 어떤 사람이었나?²³⁾ 스트라우스는 1899년에 독일 헤세(Hesse)주의 한 마을 키르흐하인(Kirchhain)에서 농기구상에 종사하던 유태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매우 엄격한 유태교도로서의 교육을 받았다. 1912년부터 마르부르크(Marburg)의 김나지움에서 고전교육을 받는 가운데, 쇼펜하우어(Soren Schopenhauer)와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를 읽었으며 곧이어 플라톤을 공부했다. 열일곱살이 된 1916년에 정치적 시온주의를 받아들여 일생동안 유지했다. 1917년에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17개월에 걸쳐 군에 복무한 뒤 마르부르크대학교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Frankfurt am Main)대학교 및 베를린대학교 등에서 철학과 수학 및 자연과학을 공부했고, 그 동안 신(新)칸트학파의 철학에 접하기도 했으며 훗설(Edmund Husserl)이 막 시작한 현상학에 접하기도 했고 1차대전의 종전과 함께 '신학의 소생' 속에 부각된 발트(Karl Barth)에 접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1921년에 함부르크(Hamburg)대학교로 가서 카씨러(Ernst Cassirer) 교수의 지도 아래 「야코비의 철학적 교리에서의 인식론에 관해 ("On Epistemology in the Philosophical Doctrine of F.H. Jacobi)」를 완성해, 그 해 12월에 통과를 보았다. 그 뒤 박사후기과정을 프라이부르크(Freiburg)대학교에서 밟으며 훗설의 강의를 직접 들었고, 이어 역시 박사후기과정을 기센(Giessen)대학교와 마르부르크대학교 및 베를린대학교에

23) 스트라우스의 약력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했다. David McBryde, "Leo Strauss," d.mcbride@uq.net.au. 또 Ken Masugi, "Leo Strauss's American Gang," *Perspectives on Political Science*, Summer 2000. 스트라우스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Kenneth L. Deutsch and John A. Murley (eds.), *Leo Strauss, the Straussians, and the American Regime*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1999). 김영국, 「L. 스트라우스」,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현대의 사회사상가』(서울: 민음사, 1979), 11-30쪽.

서 밝으며 주로 역사를 공부했다. 이어 그는 스피노자(Baruch Spinoza)와 홉스에 대해 연구했으며, 영국으로 이주한 뒤에는 케임브리지대학교 등에서 연구를 계속하는 가운데 법철학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았다. 여기서 그는 토니(R.H. Tawney)와 오크쇼트(Michael Oakeshott) 등 영국 인문사회과학계의 지도적 학자들과 사귀었다. 이 과정에서 1936년에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를 통해 *The Political Philosophy of Thomas Hobbes*를 출판할 수 있었다.

이듬해 스트라우스는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역사학과 연구원으로 임명됐고, 그 이듬해 라스키의 강력한 추천을 받아 '사회조사를 위한 새로운 대학,' 이른바 뉴스쿨(New School)의 전임이 됐다. 2차대전이 일어난 때로부터 끝난 때까지 뉴스쿨의 교수로 있으면서 유니언신학교, 미들베리대학, 엠허스트대학 등에서도 강의했고, 1944년에 미국으로 귀화했다. 1948년은 그에게 더욱 뜻깊은 해였다. *On Tyranny*를 출판한 데 이어, 시카고대학교에 몇 해째 공석 중이던 메리엄 교수직에 임명된 것이다. 영국에서는 오크쇼트, 바커, 토니 등이 강력히 추천했고, 시카고대학교에서는 쉴즈(Edward Shils)가 역시 강력히 추천했다. 그때로부터 1968년까지 시카고대학교에서 정치철학 교수로, 그 이후 별세한 해인 1973년까지 같은 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그리하여 모두 24년에 걸쳐 그곳에서 봉직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사이에 클레어몬트대학교와 버클리대학교 및 히브리대학교, 그리고 뉴욕의 세인트존스대학교 등에서도 강의하게 된다.

시카고대학교에 자리잡은 뒤 스트라우스의 저술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1953년에는 *Natural Right and History*를, 1958년에는 *Thoughts on Machiavelli*를, 1959년에는 *What Is Political Philosophy and Other Essays*를, 1964년에는 *The City and Man*을, 1968년에는 *Liberalism, Ancient and Modern*을 각각 출판했다. 김영국 교수가 그를 사사하게 됐을 때는 바로 마키아벨리의 사상에 관한 그의 저서가 출간된 직후였으며, 그것은 김 교수의 마키아벨리에 대한 연구욕을 크게 자극했던 것으로 보인다. 스트라우스는 그 뒤 몇 권의 책들을 더 출판했으며 세인트존스대학교를 비롯한 몇몇 대학들로부터 명예박사를 받았다. 그는 1973년에 매릴랜드주 애나폴리스의 세인트존스대학 명예교수로 애나폴리스에서 만 74세에 별세했다.

위에서 살폈듯, 정치철학계의 거장인 스트라우스는 '정치과학' 운동에 비판적인 대표적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정치과학' 운동의 본거지인 시카고대학교 정치학과에, 그 운동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스트라우스가 교수로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흥미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스트라우스가 '정치과학' 운동에 비판적이라는 점에 대해, 김 교수는 공감할 수 있었으며 또 민 교수의 가르침이 옳았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김 교수는 평생동안 이 입장에 서서 정치를 분석하고 연구하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기로 한다. 어쨌든, 이홍구(李洪九) 교수의 표현으로, "김 교수가 시카고대학교 유학 당시 고전적 정치철학의 마지막 거인으로 불리던 레오 스트라우스에게 사사할 수 있었던 것은 크나큰 행운이었다."²⁴⁾ 김 교수는 이제 이른바 스트라우지언(the Straussian)의 일원이 됐던 것이다.

여기서 잠시 김영국 교수가 그 동안 사사했거나, 심취했거나 또는 공감했던 정치학자들의 이름을 꼽아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떠오른다. 그것은 그들이 모두 유럽의 정치학자들이거나 유럽 출신의 미국인 정치학자들이며, 연구방법론에 있어서 전통적 방법, 그 가운데서도 철학적 방법을 선택한 학자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김 교수의 전공이 정치사상 및 정치철학이었음을 떠올린다면 전혀 이상하지 않다. 김 교수는 자신이 정치사상 및 정치철학을 전공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졌다. 그것은 그가 정치학의 여러 분야들 가운데 정치사상 및 정치철학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들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갖지 않았던 사실과 연관된다.*

24) 이홍구, 「하서(賀序)」, 김영국 외,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vi.

*김 교수는 특히 국제관계론(International Relations: I.R.) 분야와 지역연구(Area Studies) 분야는 학문으로 여기지 않는 듯한 발언을 가끔 했다. 필자가 학위를 받고 귀국했던 때 선생님의 첫 말씀은 "자네 혹시 아이 아르 (I.R.을 꼭 '아이 아르'라고 발음하셨다) 같은 거나 에어리어 스터디스 같은 거 공부하고 온 것 아닌가"이었다. 그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필자는 "선생님, 정치사상이나 정치철학을 아무나 공부할 수 있나요? 저는 능력이 모자라는 걸 진작 알았기에 처음부터 포기했습니다"라고 솔직히 '자수'했다. 선생님은 "잘 생각했었군. 그러니 학위가 빨리 끝났지. '아이 아르'라는 건 『타임』이나 『뉴스위크』만 제대로 읽어도 다 알 수 있는 거지"라고 혹평하시며 흠족해하셨다. 김 교수는 정치학과의 교수들 가운데 특히 이홍구 교수를 높이 평가하고 사랑했는데, 그렇게

4. 미국유학 이후의 왕성했던 5년 (1959-1964년)

김영국 교수가 시카고대학교에서 1년의 유학생생활을 보낸 뒤 귀국했을 때는 1959년 7월초로 자유당정권의 최악의, 따라서 최종의 시기였다. 이듬해 4월 19일에 바로 문리대 정치학과가 주동이 되어 반정부운동이 시작됐으며 그것은 금세 전국으로 확산됐고 4월 26일에 이승만대통령의 하야에 따른 자유당정권의 붕괴로 이어졌다. 끝이어 문리대 정치학과는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의 산실이 됐으며 문리대 전체가 혁신운동가들의, 또는 혁신운동가들이 주도하는 평화통일운동의 무대처럼 바뀌었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1961년의 제2학기를 앞둔 8월 29일에 그는 조교수로 승진했다. 만 31세 때의 일이었다. 개학으로부터 — 1961년까지 전국 모든 각급 학교의 학사행정은 3월 졸업에 4월 입학이었다.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연기(年紀)가 단기에서 서기로 바뀌고, 2월 졸업에 3월 입학으로 바뀌었다 — 1개월 반 뒤인 1961년 5월 16일에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군정이 실시됐고, 1963년 12월에 제3공화정이 수립되면서 민정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1964년 3월 24일에 문리대와 법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한일회담반대운동이 시작될 때까지 대학은 표면적으로는 일종의 소강상태를 경험했다.

김영국 교수의 학문활동은 약 다섯 해에 걸친 이 시기에 가장 활발했다. 우선 강의에 관해 살펴보자. 1961년 4월에 입학해 1965년 2월에 졸업한 필자의 기억에 따르면, 1961년 1학기 와 2학기에 걸쳐 김 교수는 우선 1학년 생을 상대로 헌법을 강의했다. 그가 헌법을 강의하게 된 배경은 간단하다. 그 사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한태연 교수가 문리대에서도 헌법을 강의

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였겠으나 그 가운데 하나는 이 교수가 정치철학을 전공한다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고백하건대, 필자가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에 입학했을 때의 꿈은 동서양의 정치철학을 공부해 그것을 모두 아우르는 제3의 정치철학을 정립하는 평생의 작업을 위해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스로의 역량이 너무 미흡함을 일찍 깨달아 포기하고 다른 분야를 공부했다. 그래서 필자는 오늘날까지도 정치철학을 전공하는 정치학자를 존경하는 습성이 있다. 그리고 환갑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도 “언젠가 다시 대학원에 입학해 정치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해야지” 하는 미련을 갖고 있다.

했는데, 한 학기에 두세번 출강하는 것으로 끝낼 정도로 부실하게 강의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도 성적은 C가 최고점이고 D나 F를 많이 주어 수강생들 사이에 불만이 컸다고 한다. 그래서 정치학과 교수들이 한 교수를 더 이상 초빙하지 않기로 하고 차라리 정부론과 권력론 및 민주헌정론에 밝은 김 교수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 교수의 헌법 강의는 사실상 정부론 또는 헌정론 강의가 됐다.

김 교수는 1학기 때 우선 영국의 휘어(K.C. Wheare) 교수가 1947년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에서 펴낸 *Federal Government* 제2판, 화이너의 *Theory and Practice of Modern Government* 제2판, 그리고 프리드리히(Carl J. Friedrich) 교수가 1951년에 펴낸 *Constitutional Government and Democracy* 등을 교재로 썼다.* 한 마디로 말해, 이 강의는 주로 미국과 유럽의 정부와

*첫 시간에 김 교수는 칠판에 라틴말로 *Quis Qustodes Qustodi?* 라고 썼다. “누가 보호자를 보호하는가?”라는 뜻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명제로부터 국가에 대한 개념을 풀어가기 시작했는데, 평생에 처음 들어보는 라틴말이 무척 신기했고 정치학도가 된 기분도 들었다. 우리 61학번 동기생들은 지금도 모이는 자리에서 김 교수를 회상할 때 으레 그 라틴말을 떠올린다.

여기서 잠시 필자와 김 교수의 만남에 대해 회상하기로 한다. 필자의 면접시험 때 담당교수가 바로 김 교수였다. 첫 질문이 “왜 정치학과에 지원했어?”였다. “장차 정치사상이나 또는 정치학교수가 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라고 답변하니, “집에 돈 좀 있나?”라고 되물으셨다. 좀 황당했다. “넉넉하지 못합니다”라고 답변하니, “집에 돈이 없으면 학자가 될 수 없어”라고 매정하게 꾸으시는 것이었다. 맥이 빠졌고 기분도 나빴다. 필자가 졸업하면서 곧바로 신문기자가 되는 길을 걸었던 배경의 한 쪽에는 선생님의 그 첫 말씀이 던져준 충격이랄까 또는 거기서 오는 반발이랄까가 깔려 있었다. 그러나 선생님은 따뜻한 분이였다. 입학한 뒤 몇 주 지난 시점에서 부르시더니 “자네 입학시험성적이 문리대 문학부 전체에서도 아주 좋더군. 공부하는 길을 걸어도 좋겠어.”라고 격려해 주셨다. 그리고는 필자가 이준일(李俊一) 김문원(金文元) 등 동기생들과 함께 만든 독서 서클 ‘네오 이데아 소사이어티(Neo-Idea Society)’의 지도교수직을 맡아주셨다. 그리고 필자가 학부 졸업과 동시에 신문에 취직하는 것을 아시고는 “왜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았어?”라며 아쉬워하셨다.

선생님은 필자가 동향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필자가 학부 1년생이던 때부터 가끔 인천 시청에서 선생님의 호적등본을 떼는 일 같은 것을 포함해 집안심부름을 시키셨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간호사이던 여동생의 유럽으로의 취업 때 호적등본을 비롯한 서류 갖추기 심부름을 맡기신 것이다. 인연이란 묘하다. 필자가 미국유학을 끝내고 귀국한 직후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일관됐다. 2학기 때는 앞에서 잠시 거론했던 뢰벤스타인의 *Political Power and the Governmental Process*를 주로 읽었다. 여기서 특히 권위주의체제와 전체주의체제에 대해 자세히 강의했으며, 그때로서는 생소하던 포르투갈의 독재자 살라자르(Antonio de Oliveira Salazaar)에 대해 상세히 강의했다. 뢰벤스타인의 이론들 가운데, 그 책이 출판됐던 때의 국내 정치상황과 관련해 주목됐던 부분은 '신(新)대통령제'론이었다. 미국의 대통령제와 외형으로는 비슷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권위주의체제 또는 독재체제와 같은 제도를 그는 '신대통령제'라고 부르면서 중화민국의 장제스(蔣介石)정권, 남베트남의 고딘디엠정권, 그리고 남한의 이승만정권을 예시했기 때문이다. 이 이론은 그 뒤에도 한국의 정치상황과 관련해 뜻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 뒤의 대통령제 역시 신대통령제였기 때문이다.

1962년 1학기 와 2학기에는 대통령제 정부론과 의원내각제 정부론을 각각 강의했다. 이때 영국과 미국의 정치학자들의 이론들을 살피면서도, 프랑스의 대표적 정치학자이던 뒤베르제(Maurice Duverger)의 이론들도 살폈다. 1963년에는 정치권력론과 프랑스어원서강독을 각각 담당했다. 정치권력론의 경우, 라스웰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이때 김 교수는 정치학연구에서 심리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정치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들은 학부에서 심리학 강좌를 많이 수강하라고까지 가르쳤다. 프랑스어원서강독의 경우에는 뒤베르제의 *Les partis politique*(1958)와 *Les regimes politiques* 제5판(1960) 가운데 주요한 부분들을 발췌해 등사판으로 만든 교재를 사용했다. 1964년 1학기에는 정치학연구방법론을 강의했다. 이 과목에서는 주로 전통적 방법론을 옹호하는 정치철학과, 그리고 과학적 방법론을 옹호하는 정

인 1973년의 어느 날 필자를 부르시더니 그 여동생이 귀국하는데 세관통관일을 거들어 주라는 것이었다. 그때 필자의 아내가 판사여서 그 일을 쉽게 거들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결국 필자는 그 분의 출국과 입국 모두에서 심부름을 한 셈이었다. 인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필자가 1996년 9월에 실시된 인천대학교 총장 경선에 나섰을 때 여러 가지 학내분위기를 알려주는 직원이 있었다. 알고 보니, 바로 그 분의 부군이였다. 그 분은 필자가 총장 때 정년퇴임 했는데, 정년퇴임식에서 그 분 내외에게 필자가 기념메달을 걸어드렸으니 참으로 인연이란 묘함을 거듭 느꼈다. 말이 나온 김에 덧붙이면, 선생님은 필자가 인천대학교 총장에 선출된 것을 아주 기뻐하셨다. 취임 며칠 뒤 사모님과 함께 총장실을 방문해주시고 많은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

치과학과 사이의 논쟁을 깊이 다뤘다. 행태주의적 연구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했음이 물론이다. 김 교수는 물론 정치철학과를 옹호했다. 필자가 학부 학생으로서 스트라우스의 이름에 처음 접했던 것도 이때였다.

그러면 이 시기에 있어서 김 교수의 연구 및 출판활동을 살펴기로 한다. 그는 우선 1960년 9월 호 『사상계』에 라스키의 제자로 마키아벨리에 대해서도 연구가 깊은 영국 셰필드대학교 정치학교수인 크리크(Bernard Crick)의 *The American Science of Politics: Its Origins and Conditions*(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Ltd., 1959)를 『미국의 정치학: 그 기원과 조건』이란 가제를 붙여 서평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과학의 의미도 분명하지 않으면서도 정치학을 과학이라고 부르는 데” 대해 비판적인 크리크 교수에 대해 공감했다. 이어 1962년 4월에 삼중당에서 민병태 교수와의 공저로 『정치학요강(要綱)』을 출판했다. 민 교수와의 공저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김 교수의 단독 저서였다. 이 책은 시카고대학교에서의 유학생생활을 끝내고 귀국한 때로부터 2년 반 지나서의 첫 작품인 만큼, 시카고대학교에서의 공부가 모두 여기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제1장 「정치학의 기초」에서 정치학의 성격, 역사, 대상, 방법을 다뤘고, 제2장 「권력론」에서 권력의 개념, 권력과 강제, 권력과 신앙, 권력과 법, 국가와 권력, 국가의 주권을 다뤘으며, 제3장 「정치형태론」에서 정치형태의 분류, 민주정치와 기초이론, 민주정치와 제한정부를 다뤘고, 제4장 「민주정부론」에서 영국식 의원내각제정부, 미국식 대통령제정부, 프랑스의 제5공화정, 스위스의 의회제정부를 다뤘으며, 제5장 「독재정치론」에서 공산독재정치와 파시즘독재정치를 다뤘다. 부록에서는 「근대민주정치발달사」를 다뤘다. 정치과정론과 정치행태론 등이 빠진 것이 아쉬우나, 이 책은 지금 읽어도 “꼼꼼하게 잘 쓴, 내용이 매우 충실한, 전형적인 정치학개론 교과서”라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김 교수는 그 뒤, 앞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정치학개론』 또는 『신(新)정치학개론』 등의 공저(共著)에 참여하게 되는데, 김 교수의 집필은 대체로 이 책에서 나온다.

『정치학요강』을 출판한 이듬해인 1963년 1월에는 『사상계』에 「전향한 동독철학자 블로흐: '희망의 철학'을 찾아 자유를 선택했다」를 기고했다. 라이프찌히의 칼마르크스대학교 명예교수 블로흐(Ernst Bloch)는 동독의 대

표적 마르크시스트 철학자로 이른바 네오마르크시즘(Neo-Marxism)을 이끌며 '희망의 원리'를 부르짖다가 1961년 여름에 서독으로 망명했다. 김 교수는 마르크시스트 철학자가 어떤 이념적 갈등에서 동독을 버리고 서독을 선택했는가에 대해 정치철학의 입장에 서서 설명한 것이다. 곧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미국 와이오밍대학교 영미문학 교수인 클로우(William Ober Clough)가* 편집한 *Intellectual Origins of American National Thought* 제2판(1961)를 사상계사 출판부를 통해 『미국사상의 기원』 상·하로 나눠 사상문고로 역간했다. 이 책은 유럽에서 민주주의사상이 싹 틔운 시기로부터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 이르기까지, 민주사상이 발생하고 발전해 마침내 미국사상의 주류로 자리잡을 때까지의 과정을 문헌적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역자후기에서 “이 책은 미국의 민주사상의 발생만이 아니라 세계에 공통된 민주사상의 발생과정을 나타낸다.”고 썼다.

이 역사가 출간된 때로부터 한 해도 지나지 않은 1963년에 세바인의 *A History of Political Theory*(New York: Henry Holt and Co., 1959)가 민병태 교수의 이름 아래 을유문화사에서 『정치사상사』전(前)과 후(後) 두 권으로 역간됐다. 이 책은 양으로만 따져도 방대하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이론들로부터 시작해 현대의 마르크시즘·레닌이즘, 파시즘, 나치즘까지를 자세히 다뤘기 때문이다. 물론 깊이에 있어서도 탁월하다. 그러했던 만큼, 이 책은 그 뒤 원전의 개정에 따른 새 역서의 출간에 영향받아 1982년에 7쇄로 절판될 때까지 정치학도들의 필독서로 쇄(刷)를 거듭하게 된다.²⁵⁾ 그

*앞에서 필자는 김영국 교수가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을 역간할 때 Vaughan 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뒷날 김 교수는 역자머리말에서 Vaughan 을 ‘보간’으로 오기(誤記)했다면서 이 오기를 여러 차례 아쉬워 했다. “빌리 본(Billy Vaughan) 악단이라고 있었잖아? 그 본과 같은데, 그걸 보간이라고 했으니” 하고 말하곤 했다. 그런데 Clough의 경우에는 김 교수는 클로우로 발음했다. 그러나 클러프로 발음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반문이 있었음을 덧붙인다. 앞에서 지적했듯, 김 교수는 Vaughan 을 ‘본’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보간’이라고 오기했던 사실을 두고두고 아쉬워했다. Vaughan의 gh가 묵음(默音)이란 사실을 몰랐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Clough의 gh를 묵음 처리했던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반대로 묵음이 아니었던 것 같다.

25) 원저의 제4판을 Thomas Landon Thorson이 수정해 뉴욕의 Holt, Rinehart and Winston에서 1973년에 출판했는데, 이 책을 성유보(成裕普)와 차남희(車南姬)가 공

런데 이 역간은 김영국 교수, 그리고 김영국 교수에 이어 정치학과 전임강사로 기용된 구범모 교수, 두 분에 의해 주도됐다.

이상에서 살펴듯, 김 교수의 연구는 1963년까지도 정치사상과 정치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방법론에 서서 매우 활발했음을 알게 된다. 필자의 학부시절에 퍼져 있던 '김영국 전설'의 하나는 "김 교수는 천재여서 시카고대학교에서도 더 배울 것이 없어 1년만에 귀국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김 교수의 연구와 저술이 이처럼 활발하게 나타나자 "한국의 정치학은 장차 천재 김영국에 의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됐음은 지나친 일이 아니었다.

V. 시대적 상황으로 침잠기에 들어간다

1. 중앙정보부에서 구타당하다

이처럼 왕성한 학문활동 속에서 큰 기대를 받던 김 교수에게, 그리고 더욱 깊은 연구를 계속해야 할 시점에서 시련이 찾아 왔다. 1964년의 새 학년도가 시작되면서 문리대 학생과장 — 뒷날 학생담당 학장보, 또 학생담당 부학장으로 불리게 된다 — 에 임명된 것이다. 만 34세 때의 일이다. 서울대 학생운동의 원천이자 중심이 정치학과이니 정치학과 교수가 학생과장을 맡아 해결해야 한다는 대학당국의 일방적 결정 때문에 억지추향격으로 말게 됐다. 실제로 대학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3월 24일에 문리대와 법대가 주동이 되어 "굴욕적인 대일외교 중단하라"는 구호아래 전개한 한일회담반대운동은 차차 다른 대학교들로 확대되는 가운데 박정권 타도운동으로까지 변질되었고 반정부운동이 야당과 반정부적 지식인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정부는 6월 3일에 마침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곧이어 정치학과학생들을 비롯한 일부 문리대생들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포고령위반, 불꽃회사건, 인민혁명당사건 등으로 구속되자

역해 한길사에서 1983년 출판했다. 이 역서는 1996년까지 16쇄를 기록했고 1997년에 2판 1쇄를 기록했다.

학교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2학기에 들어서면서 계엄령은 해제됐지만 정학 또는 퇴학 등의 조치가 뒤따르면서 후유증은 매우 컸다. 그 가운데 학생과장으로서 김 교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마음이 고운데다가 대학이 결코 권력에 눌려서는 안 된다는 신조를 지닌 '진정한 대학인'으로서 정부의 조치들에 분노하던 터에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공안기관들에 시달리기도 하다보니 자존심이 이만저만 상하는 것이 아니었다. 깊은 고뇌와 자괴가 계속됐다. 한 해 뒤 학생과장직을 그만 둔 뒤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왜냐하면 민 교수가 1966년 11월에 문리대 학장으로 기용되어 1970년 3월까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시기 역시 1967년의 6·8부정선거규탄운동과 1969년의 3선개헌 반대투쟁 등으로 대표되는 반정부학생운동의 계속으로 대학이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있었던 까닭에, 김 교수는 숙명적으로 민 학장의 '공식직함 없는 학생과장'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거듭 말하자면, 지식인으로서의, 그리고 제자의 앞날에 무관심할 수 없는 스승으로서의 고뇌와 자책으로 말미암아 책에 손을 대기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그뿐만 아니었다. 서울대학교 민족주의비교연구회(민비연) 사건에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고초마저 겪었다. 그 과정은 이러했다. 원래 이 연구회는 문리대 정치학과학생들과 사회학과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1963년 가을에 창립됐는데, 발기인들은 처음엔 김영국 교수를 지도교수로 모시고자 했으나 김 교수가 거절함에 그 다음으로 사회학과 부교수이던 황성모(黃性模) 박사를 모셨다. 그 때도 지도교수의 취임승락서가 붙어있어야 학교로부터 등록이 허가됐다. 그때로부터 4년이 지나서였다. 1967년 6월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든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북괴대남적화공작단' 사건이 일곱 차례에 걸쳐 중앙정보부에 의해 발표됐던 때, 제2차 발표에서 민비연이 이 공작단의 일환으로 발족됐던 것으로 발표됐다.

중앙정보부의 발표에 따르면, 서독 뮌스터 대학교에서 사회학박사를 받은 황성모가 서독유학시절에 동베를린을 방문해 동베를린 소재 북괴대사관으로부터 공산주의교양을 받았으며 김일성 노선에 따라 남조선에서 인민해방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심하고 귀국해 서울대 교수가 되자 북괴의 지령에 따라 서울대 학생들을 포섭해 그들과 함께 남조선혁명을 이끌어 갈 핵심조

직으로 민비연을 창립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비연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에서 말하는 반국가 단체이고, 황 교수와 민비연 발기인들은 모두 반국가 단체를 조직한 '수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3·24 데모 이후 서울대에서 일어난 일련의 학생시위들은 모두 이 반국가 단체로서의 민비연이 남조선해방전략에 따라 일으킨, 말하자면 적화시도의 일환이었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혐의였다.

물론 그 혐의는 전적으로 조작된 것이었다. 중앙정보부는 1967년 6월 8일에 실시된 제7대 국회의원선거 때 정부와 여당에 의해 저질러진 부정에 대한 야당과 학생 및 지식인의 반대와 저항이 확산되자 그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고심했다. 마침 동베를린사건을 포착했음을 기회로 민비연 지도교수인 황성모 교수가 서독유학생 출신임에 착안해 황 교수를 우선 동베를린 북한대사관에 포섭된 '간첩'으로 몰아붙인 뒤 민비연을 '간첩'이 주도해 만든 반국가단체로까지 몰고가고자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원시위의 배후에는 북괴가 있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시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계산했을 것이다. 황 교수는 동베를린에 가본 일조차 없음이 뒷날 법원에서 입증된다.

이 엄청난 조작 앞에서, '반국가 단체 조직의 수괴들'로 몰려 구속된 민비연 간부들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그 혐의에 대한 반증으로 김영국 교수를 거명했다. 황 교수가 주도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조직했으며 황 교수는 김 교수가 사양하기에 할 수 없이 지도교수직을 수락했을 뿐이라고 사실 그대로 진술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서 김 교수의 진술이 매우 중요해졌다. 김 교수는 물론 참고인으로 소환된 상태에서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 여기서 황 교수와 민비연 간부들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고문이 시작됐다.

처음에 김영국 교수를 지도교수로 모시려 했다는 진술은 '위장진술'임을 '자백'하라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황 교수가 주도적으로 조직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있지도 않았던 김 교수 추대설과 김 교수의 사양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던 김 교수 역시 곤욕을 치러야 했다. 1심법원은 1967년 12월에 민비연이 순수한 학술단체로 출발했으며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중앙정보부는 승복

하지 않고 이듬해 열린 2심법원 심리과정에서 민비연 관련자들 또는 참고인들을 다시 악명높던 남산의 콘셋 조사실로 소환해 진술을 뒤엎으라며 폭행을 가했다. 김 교수 역시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 심지어 서울대 교수직을 사임하도록 강요당했다. 뒷날 김 교수는 “그때 문리대학장이던 민 선생이, ‘내가 영국이 사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내가 먼저 교수직과 학장직 사표를 내겠다’고 당국에 강하게 말씀하자 당국이 후퇴했다”고 회상하면서, “민 선생은 내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였다”고 덧붙였다.

2. 침잠의 시기에 쓴 글들

순수하기만 한 30대의 한 청년학자가 이렇게 거친 세파를 겪는 사이 불의에 대한 반발이 컸고 자존심의 손상도 있지만 연구의욕이 떨어졌다. 그래서 사실상 침잠 또는 침체의 기간이 계속됐다. 정치학을 연구해야 될 하나, 교수라는데 뭣 하는 직업인가, 등 자기비하의 마음이 커졌기 때문이다. 1966년 3월부터 1969년 2월까지 석사과정을 밟았던 필자의 기억을 되돌아켜보건대, 그는 지쳐 있었고 어느 일이나 열성이 없었다. 특히 이 시기는, 다시 김계수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행태주의 정치학이 한국의 정치학계에 서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던 시기였다.²⁶⁾ 그러한 학풍은 정치철학을 중시하던 그에게 맞지 않았다. 이러한 요인들이 겹쳤기에 1964년 3월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정치학박사 학위논문을 본격적으로 집필하기 시작한 1971년 봄까지의 약 일곱 해에 걸친 시기에 그의 연구실적은 저조했다. 다음에서 그 시기를 간단히 살피기로 한다.

우선 1965년 5월에 일조각에서 출판된 『현대의 정치학』에 게재된 제1부 「정치이론」의 김 교수의 글을 검토해보자. 이 책은 민 교수가 한국정치학회 회장으로, 김 교수가 한국정치학회 연구담당 상임이사로서 있던 때 한국정치학회 연구위원회가 계획하고 편집했다. 제1부가 「정치이론」이고, 제2부가 「정치체계와 그 주요개념」이며, 제3부가 「행정분야」이고, 제4부가 「비교정치」이고, 제5부가 「국제관계론」이다. 이 구성에서 보듯, 국내에 미국정치학의 주류인 행태주의적 정치학이 도입된 때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

26) 김계수, 『한국과 정치학』, 11쪽.

에서, 우리 나라에서도 정치학을 어떻게 분과화(分科化)해야 하며 각 분과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고 각 분과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 학자들이 점검해서 그 결과를 갖고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이다. 김 교수는 제1부 「정치이론」에서 「서언」과 제3장 「새로운 정치학에 대한 고찰」을 썼다. 「서언」은 김 교수의 기본적 입장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는 스트라우스 교수의 이론에 입각해서 “새로운 정치학이 자처하는 과학성의 근거는 매우 박약”하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제3장 「새로운 정치학에 대한 고찰」은 스트라우스가 스토링(Herbert J. Storing)이 편집한 *Essays on the Scientific Study of Politics*(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2)에 기고한 발문(“Epilogue”)을 번역한 것이다. 이 글에서 스트라우스는 현대의 ‘과학적 정치학’이 투표행태, 집단이론, 과학적 행정학, 선전 등의 연구를 통해 정치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사이몬(Herbert A. Simon)과 벤틀리(Arthur F. Bentley) 등 그때 과학주의 정치연구의 대가로 알려진 정치학자들의 논문 네 편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분석론에 비취 평가한 뒤 물리학에서도 보편타당한 하나의 물리학이 있을 수 없는 터에 정치학에서 어떻게 보편타당한 하나의 정치학이 있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 다음으로는 1966년 6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대 문리대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연구발표회에서 「정치이론의 발전」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모임에서 발표된 다른 회원들의 논문들은 모두 출판된 데 반해 김 교수의 논문은 출판되지 않았음에 비취 구두로만 발표했던 것 같다.²⁷⁾ 이어 1968년 2월에 서울대학교출판부가 펴낸 『사회과학개론』에 게재된 한 편의 글이 있다. 『사회과학개론』은 서울대학교 안에 설치된 교양교재편찬위원회의 사회과학분과위원회가 편집한 책으로, 제1편 「사회과학의 기초이론」, 제2편 「한국사회」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 제1장을 서울대 사회학과 김채윤(金彩潤) 교수가 쓴 데 이어, 김 교수가 제2장 「사회과학의 개념과 역사」 및 제3장 「사회과학의 종류」를 쓴 것이다. 말하자면, ‘사회과학론’을 집필한 것으로, 대학 1학년학생들에게 사회과학이란 무엇인가를 비교적 쉽게 설명했

27) 『한국정치학회보』 제2집(1967), 230쪽.

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등 고대그리스철학자들의 학문관(學問觀)으로부터 시작해, 근대의 콩트(Auguste Comte)와 베버(Max Weber) 및 뒤르켐(Emile Durkheim)의 이론을 거쳐, 현대의 구조기능주의 또는 행태주의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사회과학이론들을 대체로 역사적 방법에 의존해 서술했다. 1970년에는 한국정치학회의 『민주주의론』 편집에 다른 25명의 정치학자들과 함께 참여했다. 이 책 역시 대학 초급 학년생들을 위한 범속한 교과서일 뿐, 깊이 있는 전문적 연구서로 보기는 어렵다. 이듬해 3월에 출판된 이 책에서, 김 교수가 쓴 장(章)이나 절(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미뤄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것 같지는 않다.

그 사이에 김 교수는 『사회과학논집』 제10권 제2호(1968)에 「한말 의병운동을 통해서 본 정치사상」과 『한국정치학회보』 제3집(1969)에 「한말 민족운동의 계보적 연구」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두 글은 그 무렵 서울대 정치학과 조교로 있으면서 의병운동을 포함한 한말의 민족운동과 그 운동의 정치사상을 전공하던 최창규(崔昌圭)가 은사의 이름으로 집필했을 것이다. 최창규는 1972년에 일조각에서 『근대 한국정치사상사』 출판했는데, 이 책에는 김 교수의 논지와 용어 및 출전에 매우 같은 논지와 용어 및 출전으로 한말의 의병운동이 잘 분석되어 있다. 그러므로 김 교수 이름 아래서의 이 두 논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에서 살펴듯, 김 교수의 30대 후반기에 해당되는 이 침잠의 시기에, 그는 학술적인 저술들을 거의 남기지 못했다. 그 반면에 민주주의, 정당, 정부형태, 권력 등을 주제로 삼은 몇 편의 시론들을 『정경연구』, 『고시계』, 『세대』, 『월간중앙』 등에 기고했는데, '잡문' 쓰기를 꺼려했던 평소의 습성에 미뤄 볼 때, 편집자의 요청을 받아 인정에 이끌려 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1968년 6월 1일자로 부교수로 승진했다.

VI.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학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논문

1.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다

김영국 교수가 원기를 되찾기 시작한 때는 대체로 1970년 여름과 1971년 봄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 이후의 글들에서는 다시 활기가 감지되기 때문이며 또 학술적인 논문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바로 그 시기에 그에게 결정적 영향을 준 민 교수가 중풍으로 쓰러졌고 1971년 2월에 서울대 대학원장직을 사임한 것도, 따라서 이제 사실상 정치학과와 최고선임교수가 된 그에게 “내가 이제 더 큰 책임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명감을 자극했을 것이다.

그는 우선 1970년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서독 뮌헨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IPSA) 제8차 세계대회에 한국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그는 이 대회의 참가기를 「세계정치학회 참석메모」라는 제목아래 서울대 『대학신문』 1970년 11월 16일자와 11월 23일자에 연재했다. 이 글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꼼꼼하게 쓰여진 글로, 세계의 정치학계가 어떤 흐름 아래 놓여있는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김 교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글에서 그는 정치학연구방법론 분야에서의 토론이 어느 분야에서보다 활발했다고 지적하고, 미국정치학계의 주요한 토론의 대상이었던 ‘계량적 및 수학적 방법’의 중요성이 이 세계대회에서 더 크게 부각됐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11월 16일자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새삼 느낀 것은 계량적 및 수학적 방법의 구체적 훈련과 교육이 우리 정치학계에 부족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과학적 방법에 대한 논의와 평가는 그 동안 우리 학계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계량적 및 수학적 방법의 훈련을 갖추지 못한 채 그 방법의 평가를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리한 일인가를 각성하게 되었다”고 썼다. 결론적으로 그는 같은 날짜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이미 1950년대에 새로운 방법으로 개척되었고 허다한 학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교정치의 연구가 아직도 방법론상의 허다한 난점을 해결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필자로서는 학문의 길이 얼마나 어렵고 까다로운 것인가를 새삼 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평소에도 별로 중시하지 않던, 과학주의방법론에 대해 이 정도로라도 큰 관심을 보이고 높은 점수를 준 것은 뜻밖이라는 느낌조차 든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생물학과 정치학」 분과에서의 토론, 곧, ‘정치학의 생물학적방법에 의한 분석’에 대해서도, 그리고 정치발전론자들이 강조해온 ‘국가건설론’을 둘러싼 토론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쏟았다. 정치사상 또는 정치철학이 아니면 정치학으로, 아니 학문으로 여기지 않는 듯이 말해온 김 교수의 지난날 자세에 비춰* 변화가 아닐 수 없었다.

그는 이어 『신동아』 1971년 신년호 특별부록 『현대인의 사상 77인』에 아놀드 브레히트(Arnold Brecht)에 대해 기고했다. 브레히트는 독일 사람으로 라이프찌히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받은 뒤 바이마르공화국의 고위관직을 포함해 독일에서 23년에 걸쳐 공직생활을 하다가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하고 나서는 정치학자로 활동했다. ‘사회조사를 위한 새로운 대학’에서 시작해 하버드대와 예일대를 거치며 주로 정치이론 분야의 거장으로 자리 잡았는데, 1959년에 프린스턴대학교 출판부를 통해 출판한 *Political Theory: The Foundation of Twentieth-Century Political Thought*는 그에게 미국정치학회의 1960년도 우드로윌슨상(Woodrow Wilson Prize)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이론가 또는 정치사상가로서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시켜주었다. 그러면 이 책의 기본적 내용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정치연구

*필자는 1966년 3월에 지금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있는 백영철(白榮哲) 박사와 함께 정치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해 김영국 교수의 강의도 수강했다. 석사논문을 쓸 때 백 박사는 프랑스의 정치사상가로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에서 출발해 사회주의로 기운 소렐(George Sorel)의 「폭력론」을 대상으로 잡았고 필자는 정치발전론의 주요 테마이던 정치사회화론을 대상으로 잡았다. 그러자 김 교수는 필자에게 “그런 게 무슨 뜻이 있나? 정치사회화 연구라는 게 결국엔 아동심리학 같은 거로 귀착되는데, 그런건 우수한 사람이 연구하는 게 아니지”라고 편찬을 주셨다. 백 박사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정치사상을 다룬다는 데 만족하시면서 “영철이가 워낙 뛰어난 사람이라 그래도 뭐 하나 그려낼꺼야” 하시며 큰 기대를 표시하셨다. 앞에서 엿보이듯, 선생님은 “그런 게 무슨 뜻이 있나?”라는 말씀을 자주 했다. 정치철학을 전공하는 큰 학자의 눈에 웬만한 것은 모두 뜻이 없는 것으로 비쳤다.

에 있어서 존재와 당위를 연결하려는 노력, 또는 정치철학과 정치과학 사이의 간격을 가교하려는 노력이었다. 쉽게 말해, 정치학에서의 전통적 연구방법과 과학적 연구방법을 조화시켜보려고 한 것이다. 김 교수는 브레히트의 그러한 노력이 “성공은 못했을망정 통합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²⁸⁾ 이어 1971년 3월 29일자 『대학신문』에 「국민발안의 현대정치적 의의」를 기고했다. 뒤베르제의 『정당론』을 참고한 이 시론에서, 그는 독재정치가 ‘국민’의 이름을 빌리는 제도가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곧이어 2차 대전을 앞뒀던 시기에 미국 정계와 외교계의 거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에버럴 해리먼(W. Averell Harriman)의 회고록 *America and Russia in A Changing World: A Half Century of Personal Observation*(Garden City, N.Y.: Doubleday, 1971)을 『현대사의 내막: 변천하는 세계 속의 미국과 러시아』라는 제목아래 『월간중앙』 1971년 5월호 부록으로 역간했다. 2차 대전 때 미국의 소련주재대사였던 해리먼은 1960년대 케네디(John F. Kennedy) 행정부 때는 대통령특사로 베트남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활약하기도 했다. 이 회고록은 그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2차대전 이후의 세계정세를 미국의 시각에서 돌이켜 본 뒤 미래의 세계를 내다본 것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에 자리잡은 리하이(Lehigh)대학교에서의 일련의 강연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회고록은 해리먼의 공산주의에 대한 강한 반감, 소련에 대한 깊은 경계심, 그리고 미국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신념을 나타내고 있다. “볼셰비키혁명은 사실상 반동적 혁명이었으며 그것은 ‘미래의 물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해리먼의 말이 이 책의 기본입장을 요약했다고 하겠다.

김 교수는 이어 『신동아』 1971년 8월 호에 「의회정치가 사는 길」을 기고했다. 1971년 5월 25일에 실시된 제8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뒤 제8대 국회의 전망을 중심으로 집필한 이 글은 그의 예리한 비판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는 우선 국회가 권위와 위신을 실추한 현실을 비판했다. “항간

28) 김영국, 「아놀드 브레히트」, 신동아 편집실 편, 『현대의 사상가 77인』(서울: 동아일보사, 1978), 113쪽. 1971년 신년호의 별책부록이 단행본으로 나온 것이다.

에는 그 동안 국회가 정부의 시녀화 했다는 혹평이 나돌았다. 여기서 문제는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녀였던가 아닌가에 있다기보다는 국회가 정부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의식이다.”라고 지적한 뒤, “국회가 민권의 입장에서 관권을 견제함을 목적으로 출발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정부의 시녀로 변질된 국회는 도저히 국회라고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의회정치가 없는 민주정치는 이미 죽은 정치이기 때문에 [...] 사양의 길을 걸어온 우리 나라의 의회정치가 8대 국회를 통해 되살아나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1971년 여름부터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됐고 1972년 7월 4일에는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김 교수는 이 시기에 발표한 몇 편의 시론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²⁹⁾ 곧이어 1972년 10월에 유신이 선포됐다. 시국은 엄혹했다. 그는 1972년 11월 20일에는 『서울신문』에 「프랑스 제5공화국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정치권력의 인격화의 문제」를 기고한 데 이어, 1972년 12월 1일자 서울대 『대학신문』이 마련한 「10월 유신과 대학의 자세」 대담에 참여해 10월 유신의 당위성을 인정했는데, 그것은 그의 평소의 신념에 미뤄 진심이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한국적 민주주의’를 표방한 유신정변을 앞둔 시기에 발표한 글들에서 그가 ‘현실사회 속에서의 실천적 지식인’ 또는 ‘학문의 토착화’ 등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예를 들어보자. 1972년 3월 6일자 『대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는, “대학상(大學像)은 현실사회 속에서 구상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1972년 9월 25일자 『대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는 그 동안 우리 지식인들이 서구이론의 소개에 치중해오지 않았는가를 반성하게 된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1973년 3월 26일자 『대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는 “선비형 지식인만이 중요시되는 지식풍토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글들이 ‘한국적 민주주의’를 지지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성립되고 수용된 서양의 이론과 제도에 매달려 있는 지적(知的) 풍토에 회의를 느끼면서 토착화된 이론의 개발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다.

29) 예컨대, 「동서평화무드의 가면과 진면」, 『월간중앙』, 1971년 8월호 및 「남북대화의 전위적 제의」, 『월간중앙』, 1971년 12월호.

2. 스트라우스 정치학에 관한 박사논문

김 교수는 이어 1972년 11월 서울대 대학원에 정치학박사 학위논문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학 논고(論考): 정치철학론과 과학적 정치학의 비판을 중심으로」를 제출해 통과를 보았다. 그리고 그 직후인 1972년 12월 20일에 정교수로 승진했으며, 1973년 2월 26일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에서의 정치학박사 1호였다. 그 이전에는 정치학전공자에게 문학박사, 철학박사, 법학박사 가운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를 받게 했고, 그래서 민병태 교수와 김운태 교수 및 차기벽(車基璧) 교수는 문학박사를, 이용희 교수와 김성희 교수는 법학박사를, 이한빈(李漢彬) 교수는 철학박사를 각각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으로 남아야 할 것은 그는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나서 논문을 제출해 학위를 받는 이른바 신제(新制)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연구경력을 인정받아 논문을 제출해 학위를 받는 이른바 구제(舊制)에 의해 학위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김 교수 평생의 학문적 연찬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박사학위논문의 내용은 어떠했나? 자신이 1959년 봄 학기에 직접 사사한 은사의 정치학에 접했던 때로부터 13년 남짓 지난 시점에서 은사의 정치학을 종합적으로 재조명한 이 논문은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이 「서론」이고, 제2장이 「정치철학론」이며, 제3장이 「과학적 정치학의 비판」이고, 제4장이 「결론」이다.

우선 제1장 「서론」을 본다. 김 교수는 “본고(本稿)는 과학적 정치학 속에 오랫동안 매몰되어온 정치철학을 부활시키려는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학론을 고찰한 것이다”라는 문장으로써 우선 이 논문의 기본성격을 밝혔다. 스트라우스의 정치학론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스트라우스가 이 주제와 관련해 쓴 글들을 모두 읽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들은 참으로 많다. 스트라우스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파네스(Aristophanes), 투기디데스(Thucydides), 플라톤, 크세노폰(Xenophon), 아리스토텔레스, 미노스(Minos), 루크레시우스(Lucretius), 마이모니데스(Maimonides), 파두아의 말실리우스(Marsilius of Padua), 스피노자, 마키아벨리, 홉스, 로크, 루소,

버크, 니체, 베버에 관한 저술뿐만 아니라 아랍의 철학자 파라비(Farabi)에 관한 논문도 남기고 있다.” 그리고 “철학적 논제에 관한 저술도 많이 남기고 있으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을 추리면 정치철학론, 역사론, 자연법론, 폭군론, 자유주의론, 교육론 등을 들 수 있다.”³⁰⁾

이처럼 광범위한 스트라우스의 저술들을 모두 고찰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김 교수는 스트라우스의 정치학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만을 다뤘다. 그런데 스트라우스의 정치학론의 핵심은 정치철학론, 그리고 현대의 과학주의정치학에 대한 비판에 있다. 따라서 김 교수는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론과 현대의 과학주의정치학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다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김 교수는 “스트라우스의 정치학은 본래 고전적 정치철학의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정치학의 본질은 현대의 과학주의정치학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세계에 있어서의 보편적 및 전체적 문제와의 대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현대의 과학주의정치학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그의 독특한 철학적 입장에서 파생되는 것이다.”라는 중간결론에 이르렀다. 그는 이 중간결론을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스트라우스는 정치적 사물에 대한 과학적 접근 뿐 아니라 역사학적 접근도 배격한다. 그의 정치학은 과학적 정치학이나 정치에 대한 역사학적 접근의 비판으로 그치지 않고 과학과 역사를 포괄하는 폭넓은 철학적 기반을 갖는다. 그의 정치철학은 소크라테스의 철학과 마찬가지로 철학적 문제에 대한 절대적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어떤 학설을 따로 제시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치의 본질에 관한 성찰을 촉구한다. 철학의 본질로 보아 어떤 절대적 진리가 제시될 수는 없다. 스트라우스는 어떤 진리를 제시한다기보다 진리에 접근하는 사고정향(思考定向)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비교적(秘敎的) 서술을 통해서 정치학연구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철학의 의의를 강조한다.³¹⁾

30) 김영국,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학논고: 정치철학론과 과학적정치학의 비판을 중심으로」, 미출간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8쪽.

31) 위와 같음, 9-10쪽.

그러면 스트라우스가 새롭게 강조한 정치철학의 논리구조는 무엇인가? 스트라우스는 존재에서 당위를 순수히 이론적으로 추리할 수 없다는 근대적 사회과학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그는 이러한 사회과학의 몰가치적 성격의 시발을, 사실과 가치는 절대적으로 이질적이며 어떠한 사실로부터도 그 사실의 가치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막스 베버에서 찾는다. 스트라우스에 따르면, 베버의 이러한 가치관은 사회과학의 윤리적 중립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사회과학에 있어서 가치문제의 박탈을 가져왔는데, 이러한 몰가치적 사회과학의 조류가 정치학연구에도 도입되어 정치철학은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문재와 관련해, 스트라우스는 몰가치적 정치학 또는 과학적 정치학을 마키아벨리가 시작했다고 보면서 마키아벨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는데, 그의 마키아벨리론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스트라우스에 의하면, 이러한 정치학은 결국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옳은 것과 틀린 것 또는 선과 악의 구별을 등한시하는 학문으로 전락하게 되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의 식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우리가 지나치게 과학성만을 주장하게 될 경우 우리는 어째서 특정한 가치, 예컨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외면하는 수밖에 없다. 모든 가치는 평등한 비중을 가지며 가치비중의 서열은 개인적 선호나 편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사회에서 이러한 가치상대주의는 정치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스트라우스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정치학과 맥락을 같이하는 시민사회에서의 타당한 정치학의 정립을 주장한다. 이러한 정치학은 결국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고전적 정치학으로의 회귀를 뜻하게 된다. 그러나 스트라우스는 거기까지만 지적했을 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학이란 이런 것이다”라든가 “정치철학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명백하게 이론을 세워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는 과학적 정치학 또는 정치과학운동을 비판하고 아리스토텔레스적 정치학으로의 회귀를 옹호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이 점 때문에 그는 다른 학자들로부터 대안이 없는 비판론자라는 혹평을 받게 된다.

김영국 교수의 그 이후의 주요한 학문적 저술들은 대체로 이 박사학위논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첫째, 박사학위를 받은 직후에 출판된 「정

치철학과 정치과학: Leo Strauss 이론을 중심으로」를³²⁾ 지적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자신의 박사학위논문 가운데 주요한 부분들을 요약한 것이다. 둘째, 1974년 스트라우스의 1주기에 즈음해 서울대 『대학신문』(1974년 10월 14일)에 기고한 「정치학에 있어서의 철학의 부활: 레오 스트라우스 1주기에 부쳐」가 있다. 신문지면 한 쪽(페이지) 전체를 차지한 이 글은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론을 요약한 것이다. 셋째, 「L. 스트라우스」를³³⁾ 지적할 수 있다. 이 글은 스트라우스의 생애와 사상을 다룬 것으로, 역시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에서 파생한 것이다. 넷째, 서강대학교 『서강신문』(1982년 11월 22일)에 기고한 「레오 스트라우스: 정치철학의 회복」을 지적할 수 있다. 다섯째,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론: 레오 스트라우스의 이론을 중심으로」를³⁴⁾ 지적할 수 있다. 이 논문 역시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에서 다룬 마키아벨리의 정치사상에 관한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여섯째, 김 교수 자신이 편집하고 또 거기에 자신의 세 편의 글을 포함시킨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을 지적할 수 있다. 김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기 위해, 주로 김 교수의 전공분야인 정치사상과 정치철학 분야의 제자들 또는 후학들이 마련한 이 책에서 김 교수는 우선 「서론」을 쓴 데 이어 제1부 「정치철학론」에서 제1장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학론」을 썼고 제2부 「정치철학자론」에서 제2장 「마키아벨리론」을 썼다. 「마키아벨리론」은 물론 스트라우스의 마키아벨리론에 크게 의존한 것이다. 김 교수가 정년퇴임 직후인 1995년 9월에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펴낸 『마키아벨리와 군주론』도 예외는 아니다. 김 교수의 마키아벨리에 대한 해설은 스트라우스의 그것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이다.

32) 공삼 민병태박사 화갑기념논총 편집위원회 편, 『공삼 민병태박사 화갑기념논총』(서울, 1973년 4월), 117-125쪽.

33)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현대의 사회사상가』(서울: 민음사, 1979), 11-30쪽에 게재됐다.

34) 『한국정치학회보』, 제17집(1983년 12월), 3-17쪽.

3. 스트라우스, 그리고 김영국에 있어서의 마키아벨리

이 대목에서 우리는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론에서 왜 마키아벨리가 등장하는가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앞에서 이미 보았듯, 스트라우스는 정치학에서 철학이 배제되고 이른바 과학이 등장하게 된 단초(端初)를 마키아벨리에서 찾았다. 1469년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나 피렌체정부의 고위 관리로 일했던 마키아벨리는 정변에 연루되어 투옥과 고문, 그리고 파직의 험한 길을 걷고 낙향해 생활하던 가운데 저 유명한 『군주론』을 쓴 뒤 1527년에 향년 57세로 죽었다. 널리 알려져 있듯, 그는 도덕적·윤리적·종교적·철학적 관점에서 떠나 냉혹한 정치현실 그대로의 상황을, 말하자면 '있는 그대로의 현실적 모습'을 염두에 두고 군주에 대한 헌책을 마련함으로써, 한 쪽으로부터는 '교활하고 사악한 교사(教師)' 또는 '악설(惡說)의 대가'로 지탄됐으나 다른 쪽으로부터는 '근대적 정치학의 개조(開祖)'로 칭송됐다. 후자에 따르면, 철학과 윤리학 또는 이상주의에 종속됐던 정치학이 마키아벨리에 의해 비로소 과학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키아벨리는 현대의 '정치과학' 운동의 선구자인 셈이기도 하다.

정치철학을 강력히 옹호하는, 그리고 과학주의정치학에 비판적인 스트라우스에게, 따라서 마키아벨리는 거세게 공격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스트라우스에 따르면, 마키아벨리는 '악마'이며 그의 저서는 '악령이 도사린 팸플릿'이다. 결론적으로, 스트라우스는 마키아벨리가 종교와 도덕을 배척함으로써 인간이 추구해야 할 덕성을 인간생활의 표준으로 삼을 것을 거부하고 "모든 사회가 현실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설사 그것이 부도덕한 것일 지라도 표준으로 삼아야 함"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마키아벨리를 죄악시킨다.

그러나 스트라우스에 따르면, 새로운 정치학을 자처하는 과학주의정치학은 마키아벨리의 정치학만큼도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과학주의 정치학을 '악마'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정치학에는 타락한 천사에서만 볼 수 있는 속성은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스트라우스에

따르면, “마키아벨리의 가르침은 차라리 우아하고 섬세하고 다채로운 만큼 새로운 정치학은 마키아벨리적인 것도 되지 못한다. 그것은 네로적인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치학을 통해서 로마가 불타고 있는 동안 제금(提琴)을 켜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정치학은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용서될 수 있다. 즉 그것은 제금을 켜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며, 로마가 불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³⁵⁾

VII. 서울대와 한국정치학회의 어른으로 후학들을 이끌다

1. 『대학신문』 주간으로 새롭게 출발하다

서울대학교에서 정교수로 승진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그러니까 42세와 43세 이후, 별세할 때까지의 약 27년 남짓한 세월을 김영국 교수는 대체로 학문연구자로서보다는 서울대와 한국정치학회의 어른으로서 생활했다. 대학행정가로서의 모습이 연구에 몰두한 학자로서의 모습을 압도한 시기였다.*

35) 김영국, 「새로운 정치학에 대한 고찰」, 한국정치학회 편, 『현대의 정치학』(서울: 일조각, 1964), 76쪽에서 다시 옮김.

*앞에서 살폈듯, 김 교수는 명문과 명문으로 이어지는 학력을 가졌기에 엘리트의식이 강했다. 그래서 필자가 대학원생 때부터 한국에서의 정치학 발달사에 관심이 있었기에 선배학자들에 대해 여쭙보면 “게는 학부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지만 서울대 대학원에 들어오지를 못해서 다른 데로 갔어. 민 선생이 학문적으로 엄격하신 분이어서 시원찮다고 느끼시면 받아주지를 않으셨어.”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또 어느어느 선배학자들에 대해 의견을 말하면 “게는 기초가 약해서 지금 뭘 썼다곤 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이러한 김 교수에게 뜻밖의 느낌을 받았던 때는 필자가 김 교수 밑에서 1973년 9월에 전임강사로 발령을 받던 때였다. 필자가 “선생님의 눈에 맞는 곳에서 학위를 한 것도 아닌데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사 올리자,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 미국의 대학원 박사과정 프로그램은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에 믿을 수 있어”라고 따뜻하게 말씀해주셨다. 필자는 필자에게 학위를 준 모교에 대해 긍지를 지니고 있었지만 선생님의 이 말씀에 감격했다. 이때 선생님은 필자에게 또 하나의 뜻밖의 말씀을 해주셨다. “우리 나라에선 학자들이 실질과는 달리 너무 빨리 대가(大家)로 인식되는 흠이 있네”라고 입을 여신 뒤 그 보기로 경제학계의 큰 학자

우선 그는 1973년 3월부터 1977년 3월까지 서울대 『대학신문』의 주간으로 봉사했다. 전임자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제9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학교를 떠나게 된 구범모 박사였다. 정치학과 입학으로나, 전임교원 임명으로도나, 김 교수의 후배인 구 교수는 김 교수를 높이 평가해 끈직히 아꼈다. “인간성에서나 학자적 자질에서나 김영국 교수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다. 다만 양심적이고 마음이 고운 탓에 엄혹한 시국에 눌러 스스로 소극적 생활을 해 왔을 뿐인데, 뭔가 새로운 활동의 기회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아주 위축되겠다.”고 판단해, 김 교수를 자신의 후임자로 천거했다. 그 무렵 한심석(韓沁錫) 총장을 비롯해 서울대학교 집행부의 구 교수에 대한 신뢰는 매우 높았다. 따라서 한 총장은 김 교수에게 주간직을 맡겼다. 구 교수의 예견은 적중했다. 한 두 해 전부터 조금씩 살아나던 활기는 새 일을 맡으면서 더욱 왕성해진 것이다. 김 교수 스스로 이렇게 회상했다: “일반 독자들들과 달리 매주 토요일 저녁때쯤 신문을 먼저 받아보는 그 즐거움은 아마도 신문제작에 참여한 사람 외에는 느낄 수 없을 것이며 일주일간의 피로와 긴장도 스스로 풀려졌다.”³⁶⁾ 『대학신문』 주간직을 맡은 것을 계기로 1976년부터 2년 동안 전국대학신문지도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일했다. 그 사이 1975년 1학기를 마친 직후에서 1976년 2월까지 반년 정도 프랑코파리정치대학원에서 잠시 연구에 전념했다. 원래 스스로의 표현으로 프랑코화일(Francophile)* 이던 그는 이때의 파리 생활을 무척 소중하게 회상하

이던 어느 분을 거명하였다. “그 사람이 이렇다 할 저술도 없는데, 일찍부터 ‘한국의 케인즈’로 선전되어 장관에, 총장에, 요직을 거쳤지. 그런데 ‘한국의 케인즈’란 사람이 오늘날까지도 이렇다 할 저술이 없네. 그 원인은 너무 일찍 대가로 알려진 바람에 그것이 부담이 되어 뭘 쓸 수가 없었던 데 있네. 뭘 써보아야 그건 도저히 명성에 걸맞는 작품이 될 수 없으니, 겁나서 못쓰게 됐던 것이지. 그래서 그 분 제자들이 방학 때 합숙하며 그 분 이름으로 책을 썼으나 그 명성에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하여 결국 출판을 그만 두었다네. 자네는 전임강사로 발령 받았으니 이때 많이 써서 매를 미리 맞게. 그러면 그 뒤엔 뭣을 써도 ‘발전하고 있다’는 평을 듣게 될 걸세.”

36) 김영국, 「유신체제와 대학신문」,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편, 『대학신문(1975-77) 영인본』, 1986년 10월 15일, 머리글, 2쪽.

*김 교수는 프랑코화일을 자처한 데 잘 나타났듯, 생활에 귀족적인 면모가 있었다. 샤또브리앙 소고기 스테이크에 고급 프랑스 적(赤)포도주를 때때로 즐겼는데, 소고기 부위에 대해 아주 밝았다. 뒷날 심장수술을 받게 됐을 때, 평소에 소고기 스테이크를 많이

곤 했다.

이 무렵 김 교수는 평소에는 그것도 학문이라는 취지로 경시(輕視)했던 지역연구(area studies)에 대해 훨씬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예컨대, 1976년 5월 31일자 『대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그는 “지금 무엇보다도 아쉬운 점은 지역연구가 부실한 데 있을 것이다. […] 현대국가는 국제사회를 외면하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 개별국가가 모두 우리의 경쟁대상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적어도 특정지역에 관한 몇 사람의 전문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쓴 것이다. 과학주의정치학에 대한 그의 평가도 훨씬 더 긍정적이 됐다. 이것은 40대 중반의 그가 학문적으로 원숙해졌음을 의미했다.

1977년 가을에 민병태 교수가 별세함에 따라 그는 서울대 정치학과와 최고선임교수가 되어 학과를 이끌게 됐다. 이어 1978년 1월 1일부터 1979년 12월 31일까지에는 서울대 학생처장으로 유신체제 말기와 10·26사태 직후의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대 학사운영 전반에 참여했으며, 1980년 8월 5일에는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으로 발령받았다. 그러나 9월 24일에 갑작스레 쓰러지면서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주변을 놀라게 했다. 다행히 한 달 뒤 퇴원해 다시 학장직에 전념할 수 있었으나 1981년 4월 19일에 다시 쓰러져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의사들은 심장수술을 제의하면서도 그것이 ‘모험적’일 수 있음을 덧붙였다. 그러므로 주변에서는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 없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구범모 교수가 수술을 받아들이도록 강력히 권하자 가족들도 모험을 결심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김 교수는 ‘제2의 삶’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때 거의 매일같이 문병한 이가 이흥구 교수였다. 김 교수는 자신이 소중하게 아끼던 후배 이 교수의 내방을 무척 즐거워했고 고마와했다.

약 3주 뒤 퇴원하면서 제출한 학장직 사표가 5월 28일자로 수리되어 평

드신 데서 온 병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였다. 물론 그 말이 의학적으로 타당한가의 여부는 필자로서는 전혀 모르겠다. 또 서양의 정치학자들 가운데 프랑스의 뒤베르제를 좋아했다. 이렇게 프랑코화일적인 데가 있었지만, 김 교수는 배뱅이굿과 정선아리랑 등 우리 겨레의 갖가지 타령에, 그리고 바둑에 아주 능숙했던 데서 보였듯, 민족 고유의 문화 전통을 지극히 사랑했다.

교수로 돌아옴으로써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진 그의 주위에 한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1982년 6월에 자신의 손 위 처남, 곧 사모님의 오빠되는 김상협(金相協) 고려대학교 총장이 국무총리로 임명된 것이다. 김 교수는 한편으로 기뻐하고 한편으로 안타까워했다. 그를 꼭 “상협씨”라고 불렀던 김 교수는 “시기가 좋지 않은데, 상협씨가 잘 해야 하겠는데”라며 걱정하곤 했다. 이 무렵 “청와대가 김 총리를 권한 없는 의전(儀典)총리 대독(代讀)총리나 시켜서 김 총리 스스로 항의차 청와대를 방문하려 했으나 실세라는 허화평(許和平) 정무수석비서관과 허삼수(許三守) 사정수석비서관 등이 방해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 소문을 들은 김 교수는 “내가 좀 도와줘야겠는데”하면서, 자신이 청와대 정무비서실을 찾아가야겠으니 방문을 주선하라고 필자를 비롯한 몇몇 학내외 제자들에게 당부했다. 그것도 여러 차례 채근했다. 김 교수가 청와대 정무비서실을 찾아가야 무엇하겠는가? 모양만 우스워지겠다는 것이 제자들의 판단이었다. 그래서 결국 필자가 나서서 “선생님, 전혀 성사가 되지 않으니 포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니, 언짢아했다. 몇 달 뒤, 12월에는 제자들과 후학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제 12대 한국정치학회 회장 경선에 입후보했다. 뜻밖에도 쉽지 않았다. 김 교수가 “대학인은 대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신조에 따라 밖으로 나서는 것을 꺼렸었기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인지도(認知度)가 높지 않음을 뒤늦게야 파악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퇴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때 반드시 당선되니 끝까지 밀고 나가라며 용기를 심어준 분이 구범모 교수였다. “도대체 김영국 선생만한 이가 어디에 있는가. 학회장을 해도 일찍 했어야 할 분인데, 무슨 소리들 하는 거야.”라며 독려했다.* 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신 뒤 김 교수는 필자를 부르시더니 “지금 과 교수들 가운데 자네가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니 나를 소개하는 글을 써서 전 회원들에게 우송하게”라고 말씀하셨다. 필자는 김 교수가 순수한 학자여서 대외활동을 사실상 끊고 계셨다는 것, 그래서 김 교수를 모르는 회원이 많을 것이라는 점들을 솔직히 털어놓은 뒤, 그러나 학문적으로 깊이 있고 책임감이 강한 만큼 반드시 시류에 흔들림 없이 학회다운 학회로 발전시킬 것인 만큼 꼭 지지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간곡하게 써서 전 회원들에게 보냈다. 결과는 11표 차이의 신승(辛勝)으로, 여섯 표만 상대방으로 옮겨갔어도 바뀌었을 것이다. 그때로부터 16년 뒤인 1998년의 일이다. 필자가 제 29대 학회장 경선에 나서기 앞서 우선 김영국, 구범모 두 은사님을 한자리에 모셔놓고 여쭙보았다. 만일 두 분 가운데

행히 선출되어, 1983년 1월 1일부터 1983년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학회를 이끌었다. 이 시기는 세계의 정치학계에서나 국내의 정치학계에서 정치체계론, 정치발전론 등으로 대표되던 미국적 행태주의 정치학을 제치고, 그 동안 미국적 행태주의 정치학에 눌러지냈던 국가론이 다시 중요하게 연구되던 '국가학 부흥의 시기'였다. 김 교수의 수십년에 걸친 연구주제와 일치하게 되어 훨씬 더 보람있게 학회를 이끌었다.

2. 이념교육에 관심을 쏟다

이렇게 생활하다보니, 이 시기에는 새로운 내용의 학술적 저술에는 거의 손을 대지 못했다. 그저 다음의 세 방면으로의 집필이 있었을 뿐이다. 첫째, 교과서류의 책에 서문을 쓰거나 또는 『정치학요강』에 포함됐던 부분을 요약하는 일이었다. 둘째, 『대학신문』에 기고하거나 좌담에 참석하는 일이었다. 셋째, 스트라우스에 대한 박사논문을 요약하거나 부연하는 일이었다.³⁷⁾

데 어느 분이라도 허락하지 않으면 나서지 않을 생각이었다. 구 선생님의 즉각적 동의는 예상했던 것이나 "의도했던 자네가 무슨 학회장이냐"고 나무람하실 것 같던 김 선생님도 "당연히 나가야지"라고 하셨을 때는 놀랐다. "내가 학회장에 당선됐을 때 학준이 힘이 컸어. 편지 받아보고 마음을 정했다고 뒷날 나에게 인사한 사람의 수가 표차보다도 훨씬 많았으니까. 이번엔 내가 자네를 도와줘야지"라고 덧붙이셨다. 엄격하신 선생님께서도 이런 따뜻함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덕분에 필자도 학회의 책임을 맡을 수 있었다.

- 38) 첫 부류로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정치학개론』(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75). 그리고 이 책을 수정증보한 『신정치학개론』(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78). 예컨대, 『신정치학개론』에서 김 교수는 제1편 「정치학의 기초」와 제3편 「정치권력론」을 집필했다. 김운태 김영국 공저, 『정치학개론』(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76)에서 김영국 교수는 「정치형태론」과 「정치과정론」 및 「현대정치사상」을 집필했다. 또 『현대정치학의 대상과 방법』(서울: 법문사, 1981)에서는 제1장 「서론」을 집필했다. 김영국 외, 『한국정치사상』(서울: 박영사, 1991)에는 「서언」을 썼고, 제7장 「한말 민족운동의 계보」를 썼는데 제7장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미 『한국정치학회보』에 수록됐던 논문이다. 둘째 부류로는,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편, 『광복 30년: 시련과 극복의 역정』(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77), 서언 등이 있다. 셋째 부류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이미 자세히 지적했다.

예외로 다음의 두 논문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한국정치학회보』 제11집(1977)에 발표한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학의 발전」이다. 둘째, 『한우근 박사 정년기념사학논총』에 발표한 「Destutt de Tracy의 이데올로지론」이다.³⁸⁾ 드 트라시(Antoine-Louis Claude Destutt de Tracy)는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전반 사이에 활동한 프랑스의 교육행정가이며 사상가였다. 그는 프랑스학술원 회원이 된 뒤 1798년에 발표한 논문 「사고능력에 관하여」를 통해 어느 사상가나 이론가에 앞서 처음으로 '이데올로지(ideologie)' 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고에 관한 학문' 곧 이데올로지가 반드시 생겨날 것으로 전망하고 자기나름의 이데올로지 체계를 세웠다. 그 체계는 인식론에서 출발해 언어학 논리학 경제학 도덕학 입법학 물리학 기하학 미적분학을 포괄하는 것으로, 김 교수의 평가에 따르면 그 구상의 웅대함은 프랑스혁명 전의 백과사전학파나 뒤에 실증철학을 완성하게 되는 콩트의 그것에 필적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그는 백과사전학파나 콩트와 같이 큰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프랑스인의 정체를 찾기 위해 국민교육이론을 세우려는 노력을 기울인 학자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김 교수가 왜 국내학계에 매우 생소한 이 사람에 대한 논문을 썼는지는 궁금하다. 그러나 그 이후의 김 교수의 저술을 보면 짐작이 간다. 이 시기에, 보다 구체적으로는 1984년 5월 14일부터 별세하실 때 까지 김 교수는 서울대학교 안에 세워진 현대사상연구회 회장으로 활동의 영역을 넓혔는데, 이 연구회는 1980년대 이후 대학을 중심으로, 특히 운동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이론들 또는 사상들에 대한 연구와 대안제시 등에 관심을 쏟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 속된 표현으로, '반체제사상' 또는 '급진적 변혁사상' 등의 본질을 분석하고 건전한 민주주의이론을 정립해 교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향한 학생들의 열정을 올바르게 이끈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김 교수의 그러한 활동은 아마도 드 트레시의 국민교육론에 영향받은 것인지 모른다.

구체적으로 말해, 김 교수는 문교부 학술연구보고서로 마련된 「대학사상

38) 이 논총은 지식산업사에서 1981년 1월에 출판됐다. 김 교수의 글은 이 논총의 776-789쪽에 있다. 김 교수는 한우근 교수의 학문과 인품을 존경했다. "한 박사가 [...] 한 박사가 [...]"라는 말을 자주 했다.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1982년 12월), 「국가이념교육의 현황과 문제점」(1984년 6월), 「현대급진사상의 계보」(1987년 8월), 「사회변동과 정신교육정립을 위한 연구」(1989년 8월) 등, 이른바 연구프로젝트들을 이끌었다. 또 마르크스의 저작들의 역서들에 대한 서평을 쓰기도 했다. 첫째, 데이비드 맥렐런(David McLellan)의 *The Thought of Karl Marx: An Interpretation*(New York, 1971)을 신오현(申午鉉) 교수가 『칼 마르크스의 사상』(서울: 민음사, 1982)으로 번역한 것을 서평했다. 둘째, 멜빈 레이더(Melvin Rader)의 *Marx's Interpretation of History*(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9)를 이용필(李容弼) 교수가 『마르크스사상의 구조: 이론적 비판』(서울: 교육과학사, 1983)으로 번역한 것을 서평했다. 셋째, 쉘로모 아비네리(Shlomo Avineri)의 *The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of Karl Marx*(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8)를 이흥구 교수가 『칼 마르크스의 사회사상과 정치사상』(서울: 까치, 1983)으로 번역한 것을 서평했다. 넷째, 데이비드 맥렐런의 *Marxism After Marx*(New York, 1979)를 안택원(安澤源) 교수가 『마르크스주의 논쟁사』(서울: 인간사랑, 1986)으로 번역한 것을 서평했다.³⁹⁾ 마르크스에 관한 주요 저작들을 다룬 이 네 편의 글들은 마르크스의 정치철학에 대한 김 교수의 깊은 이해를 보여준다. 김 교수는 대체로 마르크스의 사상이 휴머니즘에서 출발했으나 그 사상이 폭력혁명의 도구로 활용됨으로써 독재주의와 같은 것으로 이해됐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역시 이념교육과 연관된 김 교수의 논문들 가운데 논의되어야 할 논문은 1985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마련한 「현대사회와 국가」라는 대주제 아래 발표된 「현대국가의 기본문제: 산업화와 관련해서」이다.⁴⁰⁾ 그는 이 글의 결론에서 “산업화과정을 견고 있는 우리 나라는 아직도 탈산업화사회의 단계에는 들어서지 못했다. 그 까닭에 우리에게는 발전을 위한 국가의식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국가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에 대한 국

39) 『현대사조의 이해』 III(서울: 평민사, 1984), 187-201 쪽; 『현대사조의 이해』 II(서울: 대왕사, 1983), 107-120 쪽; 『현대사조의 이해』 IV(서울: 형설출판사, 1985), 9-24 쪽; 『현대사조의 이해』 VII(서울: 형설출판사, 1987), 87-104 쪽의 순서대로 실려 있다.

40) 이 논문은 『현대사회와 국가』(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년 11월), 23-33쪽에 게재됐다.

민적 신앙을 창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다른 한편에 있어 합리적 설득방법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네오마르크시즘의 국가론에 대한 독서충이 증대”하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설득력 있는 건전한 국가관이 창출될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매듭지었다.

이어 김 교수가 1991년에 대왕사를 통해 출판한 『민주화와 학생운동의 방향』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책은 「서론」에 이어 제1장 「한국학생운동의 성격」, 제2장 「한국학생운동의 역사적 고찰」, 제3장 「외국의 학생운동: 60년대 스튜던트 파워와 신좌파」, 제4장 「한국에 있어서 민주화와 학생운동의 방향」,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됐다. 「결론」에서, 그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사상적 원류로 하는 한국학생운동은 순탄치 못했던 현대사 속에서 끊임없이 선구자적 역할을 자임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 학생운동은 한국민주화의 견인차로서 그리고 분단극복의 첨병으로서 공헌을 한 점도 적지 않다”고 평가한 뒤, “그러나 운동논리와 실천방법상의 오류로 말미암아 많은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고 비판하고, “오늘날 학생운동에 가장 절실한 것은 자기반성과 변혁에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라고 가르쳤다. 그는 구체적으로 “운동논리의 다원파와 운동방법의 비폭력화”를 제의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가 1997년에 발표한 「통일독일의 정치교육실태에 관한 연구」를 지적할 수 있다. 이 글은 통일독일에서의 정치교육의 내용과 목표 및 실태를 분석하고, 그것이 한국에 주는 의미를 검토했다. “독일의 경험들은 통일을 향한 우리의 정치교육을 위해 바람직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⁴¹⁾

3. 서울대 대학원장과 부총장 시절

김 교수는 1987년 2월 11일부터 1989년 5월 9일까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가 주동이 되어 개설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설 한

41) 이 논문은 『한국정치연구』(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설 한국정치연구소) 제6호, 277-297쪽에 있다. 결론은 297쪽에 있다.

국정치연구소 초대 소장으로, 1987년 9월 1일부터 1989년 1월 31일까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장으로, 1989년 2월 1일부터 1991년 8월 18일까지는 서울대학교 부총장으로 봉사했다. 1987년 12월에는 대학의 교육공무원으로서 30년 근속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대통령으로부터 수훈했다. 그사이인 1988년 9월초에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세계미래학연합회(WFSF) 제10차 총회에 한국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했다. 귀국 직후 『대학신문』에 발표한 기행문 「중국미래학회 동향」(1988년 10월 31일) 및 「중국의 대학 대학생」(1988년 11월 7일)에서 그는 “이번 기회에 우리 나라에서도 미래학회를 조직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굳어졌다”고 썼다. 실제로 이듬해 한국미래연구학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으로 봉사했다. 그는 또 주로 서울대 졸업생들이 중심이 되어 1991년에 발족시킨 사단법인 한국현대중국연구회의 이사장으로도 추대됐으며, 이 연구회가 1993년 10월 8일과 9일 이틀동안 베이징에서 주최한 한중포럼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사회를 보기도 했다.*

김 교수는 1990년 6월에 회갑을 맞이했다. 제자들과 후학들이 ‘인산(仁山) 김영국박사 회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를 구성해 『인산김영국박사 회갑기념논문집: 정치학의 전통과 한국정치』를 1990년 6월에 박영사에서 출판했다. 33명의 필자들이 30편의 논문을 기고했는데, 「정치사상」 분야, 「국가론과 정치이론」 분야, 「비교정치와 국제정치」 분야, 「남북한관계와 사회주의국의 변화」 분야, 「한국정치」 분야 등으로 편집했다. 당시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장인 구범모 교수가 「하서(賀序)」를 썼다. 구

*필자는 이때 미국 우드로윌슨 국제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워싱턴 D.C.에 머물고 있었는데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회의가 끝나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는데 선생님이 부르시더니 많지 않은 액수의 미화를 주시며 “김포공항에서 환급해 갖고 나온 미화 가운데 남은 것인데, 미국에 가면 UCLA에서 공부하고 있는 둘째 아들[창완]에게 송금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받았다. 몇 시간 뒤 선생님께 작별인사를 올렸더니 정색을 하시며 “자네, 그 돈 꼭 보내야 하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몹시 서운했다. “선생님, 제가 이 돈을 먹고 떨어질까봐 염려되셔서 그러십니까”하고 좀 거칠게 말씀 올렸더니, 껄껄 웃으면서 “아니, 이 사람아, 자네가 바쁜 사람이라 잊어버릴까봐 그랬던 거지”라고 대답하셨다. 워싱턴 D.C.에 도착하자마자 써주신 주소로 곧바로 송금하고 전화까지 걸어 아버지께 꼭 보고 드리라고 당부했다.

교수는 “김 교수는 그 휘몰아치는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그 중요한 역사의 길목마다, 바깥 외풍과 유혹에 동요되지 않고 냉철한 이성과 칼날 같은 판단력으로 학문의 세계라는 자기의 외길 인생을 지켜왔다”고 치하했다. 구 교수는 “김 교수의 성품은 우주의 삼라만상이 다 변해도 그 만상을 규율하는 변하지 않는 실질을 찾는 것을 좋아했고, 변덕스러운 시류와 유행을 좇는 것보다 불변의 본래 모습을 지키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지적했는데, 신라호텔에서의 회갑기념연에 참석한 하객들 대부분이 정확한 지적이라며 공감했다.

김영국 교수에 대한 구범모 교수의 애정이 두터웠듯, 김영국 교수의 구범모 교수에 대한 애정 역시 두터웠다. 구 교수가 정계로 나간 뒤, 정치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범모가 무사해야 할 터인데”하며 걱정하곤 했다. 때때로 구 교수와 만나고 돌아온 뒤에는 “범모가 그러는데…”하며, 구 교수의 말을 전하면서 화제로 삼곤 했다. 김 교수의 이러한 표현은 예외적인 경우에 속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김 교수는 심지어 동료인 서울대의 어느어느 교수들에 대해 말이 나오면 “게? 게는 라스칼이지”라고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스칼’은 물론 rascal로, 불한당, 악당, 깡패라는 뜻이다. 여기서 엿보이듯, 김영국 교수의 사람평가는 엄격했다. 그만큼 김 교수의 도덕적 기준은 높았다. 김 교수의 공적 사적 생활을 두루 알던 구 교수는 “부정이라곤 조금만큼도 용납하지 않은 성직자와 같은 분”이었다고 회고하곤 했다.* 이듬해인 1991년 7월 16일에 실시된 제 19대 서울대학교 총장선거에 입후보해 네 후보 가운데 차점을 기록했다. 서울대 전체 교수 1,131명 가운데 1,026명이 참가해 2인연기명방식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전임 부총장인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김종운(金鐘

*필자가 직접 목격했던 비화를 소개하겠다. 1975년과 1977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서의 정치학과 교수 공채 때, 서방세계의 어느 한 명문대에서 정치학박사를 받은 사람이 원서를 낸 뒤 대학신문사 주간실로 김 교수를 찾아와 그때로서는 결코 적지 않은 돈에 든 봉투를 놓고 갔다. 김 교수가 곧바로 그 사실을 알곤 글자 그대로 대노하면서 돌려보낸 뒤, 그 이후론 그 사람을 상종조차 하지 않았다. 1980년과 1981년 사이의 정치학과 교수 공채 때는 국가안전기획부가 어느 특정 후보를 뽑으라고 끈질기게 압력을 가했다. 그때 사회과학대학장이던 김 교수는 끝내 뿌리쳤다.

云) 교수가 638표를, 김영국 교수가 566표를, 전용원(田溶元) 교수가 449표를, 이광호(李光鎬) 교수가 361표를 얻었다. 규정에 따라 최고득표자와 차점득표자 두 사람이 정부에 추천됐다. 정부는 관례에 따라 최고득표자인 김종운 교수를 8월 14일 총장에 임명했다.⁴²⁾ 이처럼 총장 경선에서는 뜻을 이루지 못했으나, 1995년 8월 31일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외교학과를 통틀어 처음으로 정년퇴임하는 영예로운 기록을 세웠다. 주요 언론매체들이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외도하지 않고 학문의 외길을 걸어온 그의 학자적 자세를 높이 평가했다.⁴³⁾ 그 해 11월에 명예교수로 추대됐다. 그 뒤에도 서울대 명예교수로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동창회 5대 회장으로, 그리고 1996년 11월 5일에 발족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총동창회 초대 공동회장으로 봉사했다. 1999년에 들어서면서 김 교수의 건강은 나빠져가고 있었다. 이 해 몇몇 원로학자들이 그를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추천했으나 선출되지는 않았다. 이 일은 그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고, 그는 이듬해인 2000년 1월 26일에 별세했다. 향년 70세의 아까운 연세였다. 사모님과 2남 1녀를 비롯한 유족들의 슬픔 속에, 그리고 비보에 접하고 운집한 수많은 지인(知人)들과 제자들 및 후학들의 애도 속에 삼성의료원에서 발인해 화장으로 치러진 뒤, 구범모 교수의 발의가 받아들여져 서울 서초구의 능인선원에 유골유회가 모셔졌다.

VIII. 맺음말

이상에서 김영국 교수의 정치학자로서의 반세기를 주로 수학(修學)과 연구, 그리고 강의 및 저술들을 중심으로 살폈다. 이제까지의 설명을 요약하기로 한다.

그의 정치학자로서의 활동 시기를 여섯 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단계는 1949년 9월부터 1954년 3월까지 서울대학교 문리대 정치학과에서 정치

42) 『동아일보』, 1991년 7월 17일.

43) 위와 같음, 1995년 8월 1일.

학을 공부하던 예비적 시기이다. 이 시기에 그는 정치철학과 정치제도학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정치학의, 특히 유럽중심의 정치학의 세례를 받았다. 이 시기에서 중요한 구분은 1952년 10월에 이뤄졌다. 민병태 교수의 부임으로 그는 민 교수를 통해 라스키와 매키버를 중심으로 하는 다원주의 국가학에 접하게 되고 또 민 교수의 사랑을 받게 된다.

둘째 단계는 1954년 3월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한 때로부터 1958년 8월에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 유학할 때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그는 국가다원론에 관한 주요 저서들을 번역함과 아울러 국가다원론을 중심으로 몇 편의 논문들을 발표했다. 한 마디로, 그는 국가다원론자였다. 그리고 마침내 민 교수의 강력한 추천으로 서울대학교 문리대 정치학과에 전임강사로 기용됨으로써 민 교수의 학통을 이어받을 후계자로 발돋움했다.

셋째 단계는 1958년 8월부터 1964년 2월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그는 정치철학론을 강력히 제창한 스트라우스 교수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으며 그리하여 스트라우지언, 곧 스트라우스학파의 일원이 됐고, 전통적 정치학 방면의 연구를 더욱 깊이 했다. 곧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되는 서양의 철학, 또는 정치철학을 자신의 일차적 전공으로 삼은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 방면에서 개척적인 연구업적을 남겼고 또 강의했다. 둘째 단계와 셋째 단계를 합친 약 10년이, 그러니까 만 24세 때부터 만 34세 때까지의 약 10년이 그의 정치학연구에서 가장 활발했고 '천재 김영국'의 인상을, 그리고 '한국의 정치학계를 이끌어갈 대석학'이 되리라는 기대를 주변에 각인시켜준 시기였다.

넷째 단계는 침잠의 시기이다. 1964년 3월부터 1970년 여름까지의 이 시기에 그는 국내의 정치적 여건에 영향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됐다. 만 34세에서 만 40세에 이르는, 학문적으로 매우 생산적일 수 있는 이 황금의 시기에 그는 시대적 상황의 희생자가 된 것이다.

다섯째 단계는 회복의 시기이다. 1972년에 스트라우스의 정치학에 관한 박사학위논문이 통과되고 동시에 정교수로 승진하는 것을 계기로, 그는 학문적 열정과 실력의 회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박사학위논문이 그 이후 그의 학문활동의 원천이 된다. 말하자면, 스트라우스라는 스승의 조술

자(祖述者)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여섯째, 대학과 학계의 어른으로서의 시기이다. 대체로 1973년 3월에 서울대에서 『대학신문』 주간직을 맡게 된 이후 그는 학생처장, 사회과학대학장, 대학원장, 부총장의 보직을 차례로 맡아 서울대의 지도적 대학행정가로 자리잡았으며 1983년도 한국정치학회 회장으로 정치학계를 이끌었다.

그러면 김영국 교수의 정치학은 어떤 내용이었나? 김 교수의 정치학은 스승 민병태 교수의 정치학의 뼈대인 국가다원론을 공부하고 번역하고 수용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그 점에서 그의 정치학은 이미 전통적 연구방법의 테두리 안에 있었다. 전통적 연구방법에 대한 그의 믿음은 스트라우스 교수의 정치철학을 공부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더욱 굳어졌다. 그리하여 그는 일차적으로 정치를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스트라우언이 됐다. 정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해주고 신장시켜 주며 동시에 복지를 증진시킴으로써 공공의 선(善)을 실현시키는 수단이면서 과정이며, 따라서 정치에 대한 판단은 철학적이며 이상주의적이며 당위론적이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정치의 이상주의적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은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점에서 김 교수의 정치학은 보수적 성향이 강했다고 할 것이다.

김 교수는 이처럼 전통적 정치학의 입장에서 있었지만, 과학적 정치학을 무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전통적 방법이 정치학연구의 대종이기는 하되 과학적 방법은 전통적 방법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의 연구를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믿었다.